

회 제14차 가톨릭노동

일 1974. 10. 26 - 2



제 2 장

노동사목위원회의 태동

(1970 ~ 1979년)

동청년회 전국평의회

27 장소 : 덕수궁 연못



✱ 제1절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여건

1. 유신정치의 기나긴 질곡

닉슨 미국 대통령이 힘·교섭·동맹을 축으로 아시아에 대하여 과잉개입 축소와 간접개입으로 전환, 방위부담의 전가, 해·공군력의 증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닉슨 독트린’을 1969년에 발표하였다. 이어 자국시장의 보호와 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시키고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IMF·GATT체제가 무너지고 세계경제는 커다란 격동과 혼란에 빠져들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략을 둘러싸고 소련과 대립하던 중국은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펴 1970년 4월에 주4원칙을 발표하고, 1971년 4월에 미국 탁구팀, 7월에는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의 비밀 방문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급속한 중·미 접근은 1972년 2월 17일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화해와 공존을 선언함으로써 열매를 맺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남북대화를 중용하고, 1970년 8월 27일에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시켰다. 중·미, 중·일 관계 정상화와 북한·미국, 북한·일본 간의 화해분위기를 유도하여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정착시키려는 것이었다.¹⁾ 박정희정권은 1970년 8월 15일, 북한에 대하여 선의의 경쟁을 선언하고, 1971년 8월 12일에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북한에 제의하였으며, 1975년 7월 4일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일의 3대원칙으로 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분단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으나, 냉전논리와 안보정책으로 정권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해 왔던 박정희 정권의 권력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특히 남북대화를 추진하여 군사쿠데타 이후 권력지배의 명분으로 삼아왔던 ‘선건설·후통일론’이 설득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반공·안보이념에 기반을 두고 위세를 부렸던 정권유지 수단과 정보공작정치의 철폐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외국차관과 수출증대에 의존하여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1969년부터 심대한 난관에 봉착하여 각종 사회모순이 터져 나왔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저항은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도시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투쟁도 연이어 터져 나

1) 한국역사연구회, 1991, 106~107쪽.

왔다. 민중의 이러한 저항은 박정희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분명하게 표출시켰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막대한 물량공세와 집권세력의 이점에도 새로운 안보공약과 분배공약을 내세운 김대중 신민당후보를 겨우 100만 표 차이로 물리쳤으며, 총선거는 신민당이 이전의 44석에서 2배 이상 증가한 89석을 차지하여 개헌저지선인 69석을 20석이나 상회하였다.

5·16쿠데타 이후 결정적 위기에 직면한 박정희는 권위주의통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971년 12월 6일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법률적으로 소급하여 뒷받침하기 위해 12월 27일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야당의 극한반대를 물리치고 전격 통과시켰다. 1972년 8월 3일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위기에 빠진 독점자본을 구출하고자 하였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른바 ‘10월유신’이란 불린 특별선언에서 국회해산,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 헌법의 일부 효력정지와 효력정지된 헌법조항의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기능수행,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 개정안의 처리 등을 천명하였다.²⁾ 1972년 11월 21일에 유신헌법에 대한 국회의결이나 의견표시를 봉쇄한 채 국민투표를 강행하였다. 12월 23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12월 27일에 유신헌법을 공포하였다.

유신체제 성립 이후 1970년대는 재야세력들의 유신체제 철폐운동을 유신 고수세력들이 수많은 긴급조치를 남발하여 탄압하였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피살됨으로써 5·16군사쿠데타 이후 철권정치를 휘둘렀던 박정희정권은 종말을 고하였다.

2. 파행적인 경제구조와 열악한 노동환경

1) 중화학공업화와 재벌의 성장

1972년 남북대화를 계기로 박정희정권은 자주국방을 추진하여 국내군수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유신체제와 8·3조치³⁾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체계화하고, 재벌기업들은

2) 동아일보, 1972: 465.

중화학공업화라는 구체적 정책을 통해 구조재편을 추진하였다. 우선 방위산업에 속하는 철강, 기계, 조선, 정유, 전자, 비철금속 등 주요 6개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재벌그룹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8대재벌의 매출액은 1973년 4,790억 원에서 1980년에 16조 8,550억 원으로 7년간 30배, 연평균 67.9%로 증가하였다. 이후 철강공업육성법, 전자공업진흥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련사업법 등 중화학공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중화학공업화는 현상적으로도 한국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여 총산출액에서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 18.9%에서 1980년에 8.3%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14.5%에서 1980년 28.2%로 급격히 높아졌다.

한편, 베트남과병의 대가로 한국은 군사원조 이외에 베트남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건설업체 응찰자격 획득, 주월한국군, 주월미군, 베트남군 소요물자 중 일정품목을 한국에서 공급하는 것 등 육상운송용역, 건설업 등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이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1970~1979년 10년 동안 연평균 9.4%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연평균 39%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

1970년대의 해외건설은 재벌의 유력한 축적기회였다. 저렴한 노무비용과 정부가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사지급 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재벌들은 기존 건설업체를 인수하여 해외건설에 뛰어들었다. 현대그룹, 동아그룹, 동부그룹 등 당시 건설주력 재벌들이 중동건설에서 벌어들인 오일달러로 확장하였다.

1979년 2차 유가인상으로 세계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어 한국은 자본주의의 축적과정에서 심해지던 내적 모순이 한꺼번에 표출되었다. 1970년대 국가의 각종지원은 인플레이구조를 심화하고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인플레이구조에 당시 중화학공업부문의 과열투자와 중동건설 붐에 따른 숙련노동력의 대량 해외유출이 겹치면서 1970년대 후반은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세계경제의 위축은 불확실한 해외시장 전망에서 건설되었던 중화학공업의 판로를 잃게 하였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적자에 빠져든 업종은 기계, 철강, 석유화학, 비료, 자동차 등으로 정

3) 1960년대 말 경제위기에 부실기업들이 속출하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부실기업 정리라는 응급처방을 내렸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기업의 부실화, 대불사태는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재벌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한번 8·3조치라는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강화하였다. 8·3조치의 내용은 기업사채 동결, 금리의 대폭인하, 특별금융채권 발행에 의한 저리대환과 저금리의 산업합리화자금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제에서도 감가상각률의 할증률 인상과 법인세, 소득세의 특혜를 주었다.

부의 중점 육성산업이었다. 이들의 가동률은 1981년 제조업 평균가동률 88.7%에 훨씬 못 미치는 50~60%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산업으로 파급되어 산업생산증가율과 제조업 가동률이 1979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9년 YH사건과 부마항쟁, 이어 10·26이라는 유신체제의 종말은 경제를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았다. 산업생산지수는 1979년 11.7%로 떨어졌다가 1980년에 -1.8%로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증가하던 제조업 가동률 지수 역시 두 해에 각 7%, 10%씩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성장의 주역이었던 제조업이 1980년에 -1.2% 성장하고, 특히 중화학공업의 경우 1979년 13% 성장에서 1980년에 -3.9%로 축소되어 그 결과 실업률이 1979년에 비해 38%나 증가하였다.

2) 고도성장과 노동시장의 확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따라 노동자계급 또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노동자계급의 내부구성도 크게 변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960년 21.8%에서 1980년에 43.0%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제조업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 19.7%에서 1970년 28.2%로 급증하였다.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부문 노동자 구성비는 같은 기간에 각각 33.2%, 38.7%, 47.8%로 증가되어 1970년대에 본격 추진된 중화학공업화가 노동자층 형성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1963년 1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가 17만 3,810명(전체 공장노동자의 43.2%)이었으나, 1973년에는 82만 3,809명(전체 노동자의 71.2%)으로, 다시 1978년에는 156만 2,935명(전체 노동자의 74.0%)로 증가하였다. 이들 임금노동자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 내에서 세대적으로 재생산된 노동력과 자본에 의해 창출된 상대적 과잉인구 혹은 산업예비군이 주공급원이 되었다.

1960년대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도 상대적 빈곤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들의 생활상태는 1970년대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임금, 세계최장의 노동시간, 노동현장의 산업재해가 이 시기의 노동자계급의 특징을 드러낸다. 국민경제는 1970~1975년간 연평균 9.6% 성장하였는데도 피용자보수율은 1970년의 39.0%에서 매년 하락하여 1974년에 37.1%까지 떨어졌다. 1970년부터 1981년까지 실질임금의 상승률은 7.8%에 불과해 노동생산성 증가율 11.1%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이었다. 이러한 저임금으로 상당수의 가구주 노동자들이 잔업과 특근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가족구성원의 노동으로 생계를 보조받았다.

산업재해와 직업병문제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확대되었다. 1969년 32,229명이었던 재해자가 1970년에 35,389건에 37,752명으로 늘어났고, 1976년에는 94,847건에 95,289명으로 6년 동안 2.5배 증가하였다. 직업병환자는 1969년 1,144명에서 1976년에 3,94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업체가 전체의 95%에 이른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감사행정의 미비와 전근대적 자본축적방식으로 계속 방치된 것이다.

3. 목숨을 담보하는 노동운동

박정희정권은 1970년대도 외국자본에 저렴한 국내노동력을 결합한 공업화와 수출증대를 기조로 연평균 10%가 훨씬 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정부특혜로 거대재벌이 형성되었으며, 임금노동자는 1979년 652만 명에 이르렀다. 박정희정권은 노동자의 저항을 누르기 위해 ‘외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을 제정하고 1971년 12월에는 국가비상사태선언에 이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노동기본권을 봉쇄하였다.

이와 같은 억압적인 제도에서 노동자들은 극심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인권탄압을 감내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폭력적인 유신정권의 억압에 굴복한 채 실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노총을 표방하였지만, 밑으로부터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직 안팎으로부터 거센 도전에 직면하였다.

1970년대 노동운동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1948~1970)의 항의분신이었다. 이 사건은 고도성장의 허구와 반인간적 노동정책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경제투쟁 대기업 중심인 노동운동의 오류를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 무관심한 지식인과 사회여론에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전환시킨 사건이었다. 이후 노동운동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⁴⁾

첫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극한적인 형태로 저항하였다. 조선훈 이상찬의 분신자살 기도, 아세아자동차 노조분회장의 고압선 항의, 한국회관 종업원 김차호의 프로판가스 폭발위협, 조일철강사 최재형의 자살기도, 대구 정세달의 사장의 횡포에 대

4) 이원보, 高麗大노동문제연구소 한국노동운동사 5(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 / 1961~1987), 노동문제연구소, 2004, 390~393쪽 참조.

한 자살항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노동자 서민대중들이 자연발생적 폭력적 성격의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경기도 광주 단지주민의 토지유상불하 항의시위, 한진상사 파월기술자들의 본사건물 방화시위, 울산 현대 조선 노동자들의 도급제전환 반대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벌인 대규모투쟁,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현대건설노동자들의 대우개선을 요구한 폭동 등이다.

셋째, 1970년대 초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이 불법화한 유신 체제에서도 매년 100건 이상의 파업과 단체행동이 전개되었다. 주로 임금인상, 체불임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해고반대, 기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태업, 잔업거부, 중식거부, 리본달기, 노래부르기, 시위, 농성, 단식투쟁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권력에 직접 대항하여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기존노조에 대항하여 자발적인 행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넷째, 상급 노동조합이 권력과 자본의 억압에 굴복하였지만, 노동조합 조직은 1970년의 49만 명에서 1979년의 11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각급조직이 신규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선택할 만큼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신규조직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싸웠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상급조직의 횡포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다섯째, 지식인과 종교계가 노동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전태일의 분신에 항의하여 학생들이 시위하고, 대학연구소들이 노동운동을 지원하였으며, 1974년에는 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 등 신문에 노조가 결성되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당하지만, 언론자유화운동으로 발전하여 반유신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 등은 주로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노동자들을 계몽하고 투쟁을 지원하며 한국노총의 각성을 촉구하여 한국노총과 권력으로부터 ‘불순세력’으로 지목되어 탄압을 받았다.

여섯째, 민주노조가 결성되어 활발히 활동하였다. 민주노조들은 기존노조 내부에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출현하기도 하였고, 민주노조로 시작한 노조들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섬유·전자와 같은 경공업 부문의 여성노동자들이었으며, 자주성·민주성·투쟁성이라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 노조들은 금지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감행하여 높은 노동조건을 쟁취하였고, 민주적인 노조운영으로 조직력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한국노총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일곱째, 연대투쟁과 정치투쟁이 출현한 것으로 이 가운데 김경숙이라는 여성노동자가 사망한 YH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초 회사폐업반대투쟁으로 시작하였지만, 유신헌정권과 야당 간의 대립을 촉발시키고 마침내는 유신헌정 내부의 암투를 야기하여 유신헌정을 몰락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노동운동은 권력과 자본의 삼엄한 억압과 한국노총의 왜곡된 운동노선에도 노동자들이 밑으로부터 치열하게 투쟁하고 운동지형을 확대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민주노조진영의 형성은 연대조직의 틀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투쟁도 경제투쟁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노동운동의 원칙을 고수하여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4. 규제로 얼룩진 노동법제

고도경제성장정책과 함께 우선적인 정부시책으로 제시된 국가안보우선주의에 따라 1971년 12월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었다. 1972년 12월에 ‘유신헌법’이 공포되면서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고,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1973년에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이 개정되었으며, 1974년에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선원법(1973년)·직업안정법(1974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1973년, 1976년, 1977년)·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등이 개정되고, 1976년에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이 1979년에 개정되었다.

유신시기의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기능과 분리한 노사협의회 등의 협의사항을 생산성 증강, 불만처리 등으로 구체화하고,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 ‘산하 노동단체’ 등 산별노조체제를 지향·전제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노동쟁의를 조합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쟁의제기 여부를 조합원이 결정하고, 조합원 200명 이하의 노조도 대의원제도로 조합운영의 능률화를 꾀하였다.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명령과 판정을 위반한 자는 벌칙강화 등으로 개정하였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신설된 헌법 제29조 제3항에 기초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체)에 대해 공익사업에 준하여 노동쟁의를 처리토록 하였다. 또 쟁의행위에서 상부단체의 승인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위원회의 쟁의적법성 심사와 알선권한을 행정관청으로 이관하고 알선절차에서 행정관청의 조사권을 도입하였다.

근로기준법은 법적용대상사업장의 확대,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 신설, 임금채권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에 관한 보호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연장하였다. 개별자본가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도 함께 하였다.

1970년대만 세 번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적용범위를 16인으로 확대하고 기업부담을 경감시켰다. 노동자의 요양관리와 보험급여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요양 중 정당한 지시를 위배하여 상병증(傷病症)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수급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게 하였다. 보험급여 수령권자가 사망할 때 유족의 청구·수령권도 명문화하였다.

유신체제에서 노동입법은 노사협의제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였으며, 노동보호입법을 강화하는 대신에 산업평화 유지와 사회불안요소 제거라는 명목으로 노동쟁의 규제를 더욱 강화·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행정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노동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체제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당근 즉, ‘개량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73년 후반 ‘오일쇼크’로 세계적 경제불황과 국내경기의 침체, 고용불안정 등으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속출하고, 단체협약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여 노사관계의 혼란·악순환이 계속되었다. 특히 ‘기업은 죽어도 기업인은 죽지 않는다’는 부조리한 기업풍토가 만연하였다. 1974년 1월 14일에 공포·시행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는 노동관계법규 위반의 벌칙강화 등을 단행하고, 폐지시한에 맞추어 1974년 12월에 노동관계법, 1975년에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여 노동입법으로 전환하였다.

✻ 제2절 도시산업사목연구회 출범과 전개

1. 1970년대 한국교회

유신독재 정치와 재벌중심의 파행적인 경제구조에서 민중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1970년대에 한국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양적으로는 주춤한 대신⁵⁾, 질적으로 한층 성숙하였다. 즉, 교회는 안보 논리를 내세워 기본권을 옥죄는 군부정권의 폭압적인 정치상황과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소시민들의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의롭지 못한 경제구조를 주저하지 않고 고발하는 예언자적 자세와, 부조리한 현실문제에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뛰어들어 바른 길로 돌려놓는 실천적인 모습을 드러내어 많은 청년층과 지식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교회의 현실참여를 통한 예언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는 1974년 7월 16일, 박정희정권이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를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사건’에 연루하여 내란선동죄로 구속·기소하자 전 교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지학순 주교 구속사건을 논의하던 성직자들이 박정희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사제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의 교구로 확산되었다.

사제들은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정의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억압적인 정치상황에 과감히 맞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1974년 9월 23일에 결성된 ‘민주회복국민회의’에 교회원로인 윤형중(尹亨重, 마태오, 1903~1979) 신부가 상임대표를 맡음으로써 교회 사회참여의 외연(外延)을 확장하였다. 당시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그리고 사회 양심인사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독재정치의 종식, 정보정치의 철폐, 인권유린에 대한 반대, 부정부패의 추방, 기본생존권 보장 등이었다. 이들은 박정희정권이 조작한 ‘인민혁명당사건’과 같은 시국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과감하게 활동하였다.

1976년 3월 1일 명동대성당에서 개최된 3·1절 기념미사와 기도회에서 사회의 양심인사들

5) 한국전쟁 때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는 이재민을 비롯한 어려운 이들의 생존문제에 개입하고 복음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신자 증가율이 높았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마감된 1970년대는 신자증가율이 5.2%로 주춤해졌다. 특히 1970년은 1.17%, 1971년은 0.29%에 지나지 않았다. 1970년대 초의 저조한 증가율은 1970년대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 2.3%과도 상관이 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이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3·1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는 유신헌정질서에 반대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할 때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이 앞장섰으며, 1979년에 안동교구 농민회를 탄압하는 ‘오원춘(吳元春)사건’이 발생하자 교회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등 모든 국민의 인권보호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⁶⁾ 교회의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군사정권의 탄압을 야기하여 많은 성직자들이 구속·수감되고, 교회신문에 발표되는 사목교서까지 검열되는 등 교회의 수난을 초래하였다.

2. 도시산업사목연구회 설립

어둡고 답답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1970년대에 서울대교구의 노동사목이 전기(轉機)를 맞았다. 즉, 1971년에 노동사목위원회의 전신인 ‘도시산업사목연구회’가 설립된 것이다. 교회 내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1967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반포한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응답한 것이며⁷⁾, 1968년 강화도 ‘심도직물사태’, 1970년 11월 13일의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과 같은 어두운 노동현실에 적극 관심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의 가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련의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심층적인 사회의 구조악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저항을 통하여 무엇보다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교회는 이를 사회교리에 기반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당시 급속히 변하는 상황에 교회가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6) 그러나 정치문제를 비롯한 교회의 사회참여를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다. 성직자 중 일부가 이 운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몇몇 교구장들은 교도권을 동원하여 이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으며, 1977년에는 노장 성직자 일부가 ‘천주교구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안정’을 이유로 정의구현운동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한국주재 외국인선교사들의 이른바 ‘반한’(反韓) 활동에 제동을 걸었으며, 신자들 일부가 ‘한국천주교정의신자단’을 급조하여 교회의 사회참여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같은 자료.

7) 1967년에 회칙 『민족들의 발전』이 선포되었을 때 한국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장시간과 저임금의 노동을 강요하였다. 물론 저임금노동의 경우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 정책의 결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의 중심부로 이주를 강요당하고, 이들은 거기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대중을 만들어 빈민촌을 이루어 판자촌이나 가건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거의 대부분 평균 이하의 위험상태였다. 도요안, 회칙 『민족들의 발전』 반포 30주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근대사 약사,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사상, 21호(1997년 가을), 241쪽. 회칙 『민족들의 발전』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정의평화위원회를 제정하였다(민족들의 발전 5항). 그 이후 각 나라와 교구에 있는 정의평화위원회는 잠자고 있는 가톨릭의 양심을 일깨워 크나큰 도움을 주었다. 1982년 출판된 ‘새로운 사태’는 우리나라 정의평화위원회의 첫 출판물이었다. 같은 책, 236~237쪽.



김철규 신부



한중훈 신부

록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며, 노동자들과 도시빈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⁸⁾ 1971년 1월 14일에 노동자들과 도시빈민들의 정의, 평화를 위해 연구하고 활동하기 위한 서울대교구 사제모임을 제안하여 ‘산업선교협의회’ 준비모임을 개최하였다. 1971년 1월 31일에 김수환 추기경과 서울대교구 총대리 김철규(金哲圭, 마티아, 1918~1990) 신부가 한국 살레시오회 유 마리오 신부에게 요청하여 살레시오회 도요안(都要安, John Francis Trisolini, S.D.B., 1937~) 신부를 이 모임에 참석시켰다. 이어 1971년 3월 24일에 서울대교구 회의실에서 김철규 신부, 서대문성당 주임 최용록(崔鏞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928~) 신부, 당산동성당 주임 명노환(明魯環, 스테파노, 1940~) 신부, 도림동성당 주임 박성종 신부, 구로1동성당 주임 이승훈(李承薰, 바오로, 1937~) 신부, 성수동성당 주임 루나(A. Luna, 윤고명) 신부, 교구청 김병도(金秉濤, 프란치스코, 1935~) 신부, 동성고등학교 김병일(金秉溢, 요셉, 1935~) 지도 신부, 교구청 김몽은(金蒙恩, 요한, 1927~2004) 신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지도 한중훈(韓鐘勳, 스테파노, 1930~2005) 신부, 중림동성당 주임 박병운(朴炳閔, 토마, 1927~2002) 신부, 살레시오회 도요안 신부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설립하였다.⁹⁾ 이 연구회의 성격은 서울대교구 총대리 김철규 신부가 밝힌 설립취지에 잘 드러난다.

“오늘날의 사목은 본당사목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도시산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에 따라 교회의 산업사목의 비중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회 내의 모든 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산업문제를 깊이 연구할 기구의 필요성도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는 이 기구를 통하여 트레이닝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회는 그 명칭을 가칭 ‘도시산업사목연구회’¹⁰⁾로 정했다.”

8) 같은 책, 240쪽.

9)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12명의 사제들에게 도시빈민과 노동계 안에 교회의 역할과 활동을 연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 모임의 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모임이라고 하였다. 도요안,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의 역사와 사목적 고찰, 가톨릭대학 출판부, 신학과 사상 제4호(1990. 12), 가톨릭대학 출판부, 62쪽. 1971년부터 1973년까지는 도시산업사목연구회가 첫 번째 사명 확립과 장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발전의 기초를 세우는 기간이었다. 같은 글, 67쪽.

10) 애초 ‘노동사목연구원’ 또는 ‘산업선교협의회’라는 명칭을 잠시 사용하였으나, 도시노동자문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업주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하며, 따라서 대상을 총괄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위원들의

설립 이후 위원들은 박성종 신부의 의견을 따라 연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명칭과 설립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 취지를 널리 알리는 일에 힘을 쏟았으며, 이와 같은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편성문제 등을 토론했었는데, 노동자문제뿐 아니라, 기업주들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 균형을 잡고자 하였다. 이 위원회의 본래목적인 연구와 함께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학생을 위시하여 사제·노동자·기업주 등 각계각층을 상대로 산업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노동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였다.¹¹⁾

이러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박성종 신부, 도요안 신부, 최용록 신부 등 3명을 기초위원으로 선출하여 준비작업을 맡겼으며, 1971년 4월 24일에 다시 이들을 기획위원으로 선임하여 향후 연구작업과 수행할 업무를 기획하도록 하였다.¹²⁾ 또한 회칙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수집을 최용록 신부가 책임지고,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지도신부인 한종훈 신부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연구회는 첫 해의 사업으로 각 대학 논문집과 『기독교 사상』, 『사목』, 『전망』 등에서 산업사회학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노동관련 회칙들인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팔십 주년』(*Octogesimo Adveniens*) 등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현대세계의 사목현장』(*Gaudium et Spes*)을 학습하고, 민주주의 근본원리와 실제,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등을 연구하였다.

3. 주교단 사목교서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자」

박정희정권은 재벌을 키우고,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였으므로 정치·경제적으로 불의하고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부정부패와 퇴폐풍조가 만연하였다. 또한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정책은 노동자·농민·어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여 농촌경제를

의견을 좇아 ‘도시산업사목연구회’로 곧 바뀌었다.

11) 산업사목연구회 기획위원 모임 보고서, 1971년 7월 7일자.

12) 도요안, 같은 글, 70쪽. 이 3명의 기획위원들과 총무 윤순녀는 1971년 4월부터 박성종 신부가 주임사제로 사목하는 도립동성당에 매월 모여 각종사업과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다. 산업사목연구회 기획위원 모임 보고서, 1971년 4월 14일자 이하 참조.

파탄시키고 도시빈민을 양산하였다. 노동자·농민·어민들은 자신의 처지만 한탄할 뿐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저 살아남기 위하여 일만 하였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존조건에도 못 미치는 삶이 계속 강요되자, 이들의 분노는 폭발하여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1970년 11월 13일의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서울 청계천 일대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경기도 광주의 허허벌판에 내던져져 굶주림과 무관심에 떨어진 3만여 명의 주민들이 경찰차를 방화까지 하면서 대폭동을 일으킨 1971년 8월의 ‘경기도광주대단지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허울 좋은 경제성장의 구호 뒤에 가려진 노동자와 도시빈민들의 삶의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처럼 1970년대 한국사회의 치부가 여실히 드러나는 가운데 1971년 10월 5일부터 사흘 동안 전개된 원주교구의 부정부패 추방운동은 교회 안팎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많은 이들을 각성시켰다. 원주교구는 5·16장학회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원주문화방송국을 설립하였는데, 방송국을 둘러싼 환경은 도저히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었다.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앞장서서 “부정부패 뿌리뽑자”, “사회정의 이룩하자”고 교구민들과 시민들에게 요청하자, 원주시민들이 적극 호응하여 시위와 농성에 참여하였다. 원주교구와 시민들의 사회개혁에 대한 강렬한 요청은 가톨릭교회뿐 아니라, 개신교까지 각성하게 하여 신부와 목사들이 침묵시위와 부정부패추방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대교구 도시산업사목연구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보통시민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도저히 지닐 수 없을 만큼 부정과 불의로 얼룩진 사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회의 입장을 한국주교단의 이름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보내 주교단이 교회의 의견을 정부에 알리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촉구하게 하였다.¹³⁾ 한국주교단은 서울대교구 도시산업사목연구회가 보낸 이와 같은 건의서를 보고 주교단의 이름으로 가톨릭신자들과 국민들에게 공동사목교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주교단은 건의서를 상신(上申)한 서울대교구 도시산업사목연구회에 교서의 기초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요안 신부, 김철규 신부, 박성종 신부, 박병운 신부, 김수창(金壽昌, 야고보, 1936~) 신부 등이 이 교서의 기초 작업을 수행한 뒤 주교회의에 올렸다.¹⁴⁾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주교단은 1971년 12월의 주교회의 정기총

13) 도시산업사목연구회 모임 보고서, 1971년 10월 14일자.

14) 도요안 신부의 증언, 2007년 5월 1일자.

회에서 1972년을 ‘정의와 평화의 해’로 선포하고 주교회의 안에 구성된 ‘사회정의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972년 1월 2일 명동대성당에서 ‘평화의 날 미사’를 봉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1월 14일 평신도의 날을 기하여 오후 7시에 명동대성당에서 11명의 주교와 성직자, 수도자들이 참석하여 ‘평화의 날’ 미사를 봉헌하고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자』는 공동사목교서를 발표하였다.

전국 가톨릭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형제들에게 보낸 이 사목교서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전달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천명하였다.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경제정의는 실천되지 않고 비인도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한국의 현 실정을 지적하고, 사회교리에서 제시하는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치·기업·상업 등의 올바른 개념을 제시하고, 농어민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였으며, 국민 모두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특권과 특혜를 버리고, 뇌물을 근절할 것도 요청하였다. 이어 절대자를 신봉하는 신앙이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회가 정화되기 위해서는 폭동이나 혁명보다 인간혁명인 회심(回心)을 바탕으로 삼아 국민 각자가 양심의 소리를 따라 생활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교회는 사회를 혼란케 하는 온갖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¹⁵⁾

이 공동사목교서는 가톨릭교회의 사회정의에 관한 사회교리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교회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가톨릭교회가 이제는 불의와 부정, 부패와 부조리, 인권탄압과 독재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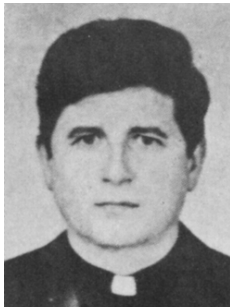
4. 참여범위 확대와 명칭변경

서울대교구 도시산업사목연구회는 1971년 7월 7일에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회장 윤순녀에게 서기의 임무를 맡기었다.¹⁷⁾ 이어 1972년 1월부터 위원의 자격을 성직자·수도자·평신도 등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하고 윤순녀를 시간제 직원인 총

15) 明洞天主敎會, 明洞天主敎會 二百年史第1輯 韓國가톨릭人權運動史, 明洞天主敎會, 1984, 92쪽. 부록 3에 전문 수록.

16) 같은 책, 94쪽.

17) 산업사목연구회 기획위원 모임 보고서, 1971년 4월 14일자, 7월 7일자.



도요안 신부

무로 임명하였으며, 임시사무실을 돈보스코청소년센터로 정하였다.¹⁸⁾ 1972년 10월 18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첫째, 위원을 평신도(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장, 가톨릭노동장년회 임원과 실무지도자)와 수녀·신학생·사제들 가운데 관심 있고 활동하는 이들로 확장하였다.¹⁹⁾ 산업문제에 관하여 일원화한 기구로 정비하고 확장하여 서울대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과 수녀, 신학생들의 활동을 연결하고 개신교와 함께 활동할 때도 중복되거나 분산되는 일을 지양하도록 하며, 서울대교구가 지원하던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 활동기금을 위원회의 재정지원에 일괄함으로써 사무적 간소화를 기하였다.²⁰⁾ 셋째, 연구보다 활동과 연구를 겸하는 실질적인 일을 함으로써 이 위원회가 이 사회 안에 참된 누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산업사목위원회’로 개칭하였다.



양 노엘 신부

사제위원단은 도요안 신부, 박성종 신부, 박병윤 신부, 최용록 신부, 양 노엘(Noel Stephen Ryan, S.S.C., 1938~) 신부, 염수정(廉洙政, 안드레아, 1943~) 신부,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 지도신부,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 등 이었다. 수녀위원은 노틀담수녀회 1명, 살레시오수녀회 1명, 한국순교복자수녀회 1명, 샬트로 성 바오로 수녀회 1명, 성가소비녀회 1명 등 이었다. 신학생위원은 신학생 산업사목팀 2명이었으며, 평신도위원은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 회장단 4명, 가톨릭노동장년회 2명, 이진엽(요셉), 정양숙(마리아나), 김혜경(사라), 송옥자(마리아 고레티), 송명숙, 윤순녀 등이었다. 이들 25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고²¹⁾, 1972년 10월에 윤순녀의 뒤를 이어 김혜경을 총무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1973년 10월 24일에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는 원래 준비위원으로 임명된 사제들 가운데 일부는 그만두거나 교체되었으며²²⁾, 수녀위원들은 버스 안내원들을

18) 도시산업사목연구회 기획위원 보고서, 1972년 1월 14일자; 도시산업사목연구회 보고서, 1972년 5월 18일자.

19) 문호를 신학생·수도자·평신도에게 개방하고 환영하기로 한 의견은 이전부터 제기되었다: 도시산업사목연구회 기획위원 보고서, 1972년 1월 14일자.

20)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예산과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북부연합회 예산을 통합하기로 서울대교구 본부와 합의하였다: 도시산업사목위원회 보고서, 1973년 1월 25일자.

21) 도시산업사목연구회 보고서, 1972년 10월 18일자.

22) 한종훈 신부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제1대 전국지도신부인 박성종 신부가 사임하자, 1969년 10월 20일에 제2대 전국지도신부로 임명되었는데, 1972년 1월 27일에 사임하고 수원교구로 돌아간 대신에 1972년 4월 25~26일에 개

위해 처음으로 산업분야에서 활동한 이들이 참여하였다. 교구장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²³⁾, 수녀 대표자 2명,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 2명, 가톨릭노동장년회 1명, 특수임명 2명 등으로 결정되어 위원장 도요안 신부, 위원 박성중 신부, 염수정 신부, 박병윤 신부, 양 노엘 신부, 김종덕(가톨릭노동장년회), 이명수(MCC²⁴⁾), 이진엽(특수활동노조), 김혜경(CO²⁵⁾), 문 요안나 수녀, 박금옥 수녀, 이한영(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부연합회), 이경심(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총무 김혜경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²⁶⁾

도시산업사목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상임위원회는 신부단과 수녀단 그리고 각 분야별 평신도 대표 1인들로 구성되며, 격월로 한 번씩 모여 활동을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방향과 대책을 강구하였다.²⁷⁾ 운영위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북부연합회 지도신부와 지도수녀,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 총무로 구성되어 격월로 한 번씩 모여 운영(재정) 문제만을 다루었다.

도시산업사목위원회는 사도직단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취지와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결코 새로운 단체는 아니었다. 즉, 분야별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교류시킴으로써 활동의 일원화를 기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것이어서 매월 각 분야별로 모여 교류하고, 1년에 2번 총회를 열어 각각 사례연구를 교환하였으며 예산총회를 개최하였다.²⁸⁾

최된 제1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지도신부단 회의에서 서울대교구 김수창 신부가 전국지도신부에 임명되었으며, 성수동성당 루나 신부가 고국인 멕시코로 귀국하였다. 총대리 김철규 신부가 분당신부에 임명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최용록 지도신부 대신 성골품반외방선교회 양 노엘 신부가 맡았으며, 박성중 신부도 분당 활동에 전념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 신부들만 실무자로 있었으며, 다른 이들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사표 낸 상태였다.

23) 그러나 마지막 정기총회 때 토론하고 교구장과 상의한 결과, 평신도 부위원장 2인을 임명하지 않고 사제단에서 결정권과 발언권이 있는 사제 4명을 임명하였다: 1973년 9월 18일자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사제단회의 결정사항.

24) MCC(Mouvement des Cadres Chrétiens)는 특수가톨릭운동으로서 기업주도 아니고, 노동자의 신분도 아닌 가톨릭노동청년회 출신을 위하여 특별히 하는 것이지만, 가톨릭노동청년회 출신이 아니더라도 신자로서 산업계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책에서 바로 생활을 반성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사회를 이룩하려는 가톨릭 운동이다.

25) CO(community organization)는 ‘지역조직활동’, ‘지역사회 주민조직’, ‘도시문제연구’ 등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 통일된 것이 없이 사용되었지만, 주로 CO를 관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책에서는 CO를 그대로 사용한다: 필자 주.

26)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보고서, 1973년 10월 24일자.

27) 상임위원은 모든 업무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단 사제단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결정권이 없다. 모든 활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수행하지만 세부사항은 각 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남녀회장은 연 3회 개최되는 정기총회나 필요에 의하여 월 1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없다. 정기총회의 회비는 각출하지 않고 미사 때 신부들과 모든 위원들의 연보로 경비를 충당하며, 부족액은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예산에서 보조한다: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사제단 모임, 1973년 9월 18일자.

1974년 9월의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재정비하였다. 즉, 박성종 신부와 박병윤 신부가 사임하여 위원으로만 활동하고, 후임으로 젊은 사제들 중에서 임명하기로 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남·북부연합회가 총회를 개최한 뒤 새로 선임되는 남·여 회장으로 결정하고, 가톨릭노동장년회는 남·여 2명으로, CO는 김혜경이 유임하며,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1명, 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회장 1명, 가톨릭노동청년회 동부지구 1명 등 3명을 옵서버로 참관하기로 하였다.²⁹⁾ 그래서 사제단의 장덕필(張德弼, 니콜라오, 1940~) 신부, 수녀단의 유 도미니카 수녀, 가톨릭노동장년회 이해수(아우구스티노),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남자회장과 남부연합회 여자회장, 옵서버로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의 정인숙(아네스), 동부지구의 이정심, 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회장 이진엽 등이 각각 참석하였다.³⁰⁾

5. 정기총회

도시산업사목연구회의 정기총회는 활동을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계에 문제를 초래한 정치·경제·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활동을 신앙의 빛으로 반성한 뒤 복음적인 자세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그 시대의 징표를 읽어 총회의 주제로 삼고 이에 적합한 성서말씀을 묵상하면서 총회를 시작하였다. 이어 정치·경제·사회적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정리한 강의 또는 그 시대정신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를 돕고 실천지침을 제시해 주는 신학강의를 통해 시대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행동방향을 결정하였다.

1) 1973년 정기총회

1973년 10월 24일에 분도회관에서 사제·수도자·신학생·평신도들이 참석하여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³¹⁾ 주제는 산업위원회의 분야별 성격과 역할이었으며, ‘특수 가톨릭 액

28) 그러나 곧이어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최소한 연 3회 개최하기로 수정하였다: 도시산업사목위원회 보고서, 1973년 1월 25일자.

29)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9월 10일자.

30)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10월 10일자.

31)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기총회를 계기로 그리스도인 관리경영자들의 모임을 추진해 보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외국은 이미 경험한 MCC의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하고 함께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1973년 7월

선의 일반적인 방법론'(박성중 신부), '가톨릭 액션의 근본적인 이념'(도요안 신부), 분과별 성격과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2) 1974년 정기총회

1974년은 1월 24일, 6월 6일, 12월 1일 등 3회 개최되었다. 1월 24일에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위원장 도요안 신부, 조 신부, 염수정 신부, 최용록 신부, 문 요안나 수녀, 박 수녀, 유 도미니카 수녀, 신 프란체스카 수녀, 이진엽, 이해수, 이한영, 이 베드로, 이경심, 박경옥, 송옥자, 오순자, 김혜경, 김 미카엘 등이 참석하여 개최한 1월 정기총회는 한국노사문제연구협회 박청산 회장의 '현대 도시산업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 실무자들의 자세와 사명'에 대한 강의, 1973년 도시산업사목위원회 결산보고, 각 분야별 사업계획과 예산보고 등으로 진행하였다.

1974년의 두 번째 정기총회는 6월 6일에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개최하였다. 말씀의 전례를 거행한 뒤에 인사교환과 각 분야별 활동을 보고하였는데, 개인활동보고, 그룹활동보고, 집단 합의에 대한 보고 등으로 하였으며, 노동자와 주민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는지 증언하였다.³²⁾

이어진 패널토의와 질의응답은 이진엽의 사회로 김몽은 신부, 이상훈(李相薰, 리노, 1927~) 신부, 김병일 신부 등이 연사로 참가하여 각 분과별 토의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몽은 신부는 현재의 노동환경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에 감명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공동체의 대화 안에서 의식구조를 높인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상훈 신부는 너무 지나친 투쟁과, 수고한 것만큼 받으려는 욕심 등을 반성하고, 봉헌되는 희생이 사회를 변화시키므로 생생한 체험담을 통한 신앙교육과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병일 신부는 집단이기주의와 성취욕을 지적하고 투쟁만이 아니라, 기업주와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요청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적극 모색하기를 요청하였다.

7일 제1차 준비모임 토의사항.

32)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였다. 즉, 인간의 변화(어떤 활동을 통해 상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발견 또는 자기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책임성 발견, 진리와 정의의 현시), 구조의 변화(회사, 노동조합, 동네에서 단결심의 조성, 정의로운 정신 또는 단체적 신뢰감 조성), 죄의 발견과 극복의 가능성(상호 무관심과 불신이 만연되었는데, 어떤 활동이나 사건을 계기로 그것을 극복한 예), 자기 또는 다른 이의 죄에도 자기 또는 다른 이의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활동의 발견(미신자 또는 열심한 신자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자기를 남에게 바치는 사람들일 때 우리는 그들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발견하는가?)

분과토의 발표의 첫 주제인 ‘투쟁은 해야만 하는가?’에서 비인간적인 산업사회에서 상실된 기본권을 회복하고 노동자의 향상을 위해서는 투쟁이 필연적이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인간적인 호소에 무감각한 산업사회에서 노동자와 경영자가 대등하게 대화할 수 없는 여건에서 권익을 찾기 위하여 정당한 투쟁은 필요하지만, 자기의무를 망각치 말고, 그리스도인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한국교회는 귀족주의인가?’에서 교회는 권위적인 요소를 지니고 부유층에 더욱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이며, 젊은이들을 잃는데도 이에 대한 노력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교회는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조직과 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성직자의 귀족화를 따지기보다 가난한 마음으로 내적 갈등을 극복하며 대화를 통하여 공동의 기도를 바쳐야 할 것 등으로 요약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본당신부’는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본당에서 소외되는 것은 본당활동보다 직장이나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노동자라는 소외의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당신부에게 가톨릭노동청년회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도 본당에서 솔선수범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노동자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가 속한 환경 속의 사도로서 계속 활동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1974년의 세 번째 총회는 12월 1일에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서강대학교 박영기 교수의 ‘노동 기본권의 뜻과 현황’이라는 주제강의와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 신현도(안토니오)와 정순남의 ‘사회로 등장하는 직업병’ 강의에 대한 질의와 응답, 그리고 ‘법 하의 우리 권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법에 대한 개정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 분과에서는 어떻게 직업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가?’ 등을 토의하였다.

3) 1975년 이후의 정기총회

1975년 제1차 정기총회는 1975년 1월 8일에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각 분과별 대표들이 모여 1974년 결산보고와 1975년 예산심의, 각 분야별 활동보고, 동기(冬期) 신학생 훈련보고와 결정사항 등으로 진행하였다.

1975년 제2차 정기총회는 6월 6일에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5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다. 총회주제인 ‘빛과 어두움’을 각 7~10씩 5개 분과로 나누어 토의하고 이를 종합하여 발표한 뒤 가톨릭대학 신학부 교수 오경환(吳庚煥, 프란치스코, 1937~) 신부, 가톨릭노동청년

회 북부연합회 양 노엘 신부, 도요안 신부가 전체를 평가하고, 각 분야별로 분과토의를 종합하여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지 의견을 나누었다.

1977년 정기총회는 1월 24일 오후 7시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1977년도 예산안 재검토, 상임위원회 재편성, 1977년도 도시산업사목위원회 활동계획 모색,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연구회와 피정계획, 사목방침에 의한 본당과 관계 등을 논의하였다.³³⁾

6. 개신교와 협조 그리고 갈등

도시산업사목위원회가 설립된 1971년부터 노동계 안에서 개신교의 도시산업선교회와 함께 활동하였다. 특히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시산업선교회와 함께 활동하였는데, 도시산업선교회 목사들, 실무자들과 노동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문제를 체험하였다.³⁴⁾

1971년 5월 16일에 업주가 사주한 자의 폭력으로 한영섬유 김진수(요셉)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 단체들이 보조를 함께 하였다.³⁵⁾ 1971년 11월 22일 노동조합결성을 둘러싸고 기업주로부터 부당한 방해를 받던 영창실업사 노동자들을 돕기 위하여 도시산업연구회의 도요안 신부와 정릉성당의 장익 신부, 크리스천사회행동협의체(The Korea Christian Action Organization for Urban Industrial Mission: KCAO-UIM)³⁶⁾의 조승혁

33) 1978년 이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는 보고는 있으나, 긴급조치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다.

34) 도요안, 같은 글, 75~76쪽. 그러나 노동사목에서 개신교와 협조관계는 앞에서 본 것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던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톨릭노동청년회들이 방지거반 활동을 통하여 재건대(넝마주이)들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시화하자, 경찰이 1962년 5월에 가톨릭교회와 개신교를 연합하여 ‘근로재건대’를 발대시키고 6월 22일에 교화지도위원회를 발족하여 위원장은 장로회 조항록 목사, 부위원장은 박성중 신부가 맡은 바 있다. 이어 1968년에 강화도 ‘심도직물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총재주교이자 마산교구장인 김수환 주교가 개신교의 조승혁 목사와 성공회의 리처드 신부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1969년 10월 24일에 가톨릭교회와 개신교가 서울시민회관에서 ‘사회발전과 노동문제’를 주제로 대강연회를 공동주최하고 가톨릭·개신교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면서 교회가 노동자의 인권옹호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35)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에서 다룬다.

36) 1971년 1월 4일에 이사장 박홍(朴弘, 루가, 1941~) 신부와 사무총장 조승혁 목사 등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적 사명을 절감하고 연합전선형성과 액션을 위해서’라는 동기로 교회의 사회적 관심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표현이 절실하여 대한가톨릭학생총연합회·가톨릭노동청년회·안양근로자회관·가톨릭노동장년회·크리스천아카데미·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위원회·수도권도시선교회위원회·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대한YMCA연맹·대한YWCA연합회·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등 천주교·개신교의 노동·빈민·학생단체들을 참여시켜 조직하였다. 힘없고 가난하며 압박받는 대중들의 문제는 단지 개인적이고, 자신들의 무능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사회적이고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하므로 단지 교회의 선교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활동으로서 사회개혁을 위한 행동표

목사 등이 협력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지원하였다.

1972년 2월 18일에 영등포, 안양, 면목동 등지에서 일하는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목사들과 수녀, 평신도 노동조합 간부들이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크라운전자공업 노동조합 조직문제에 대한 관계자의 증언을 듣고, 정부시책에서 해야 할 바를 토의하였다. 이처럼 가톨릭과 개신교 관계자들이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때 공동보조를 취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가톨릭과 개신교가 긴밀히 협조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지향하는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고, 구조와 현실인식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가톨릭을 앞세워 일치운동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심지어 사전에 허락도 받지 않고 가톨릭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거듭되자 1972년 3월 4일에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위원들에게 산업선교회와 협력관계를 연구하게 하여 향후 그들과 공동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게 하였다.

1. 현대 한국의 산업분야에서 산업선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2.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평신도들이 그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개인, 단체의 관계).
3. 가톨릭노동청년회와 산업선교회 간에 활동상황에 대해서 함께 협동하고 있다(예 : 영등포 노동자 회관, 한국모방 교육, 크라운전자, 천 요셉 투사 문제).
4. 산업분야에서 개신교와 일치운동을 할 수 있고 해야만 된다. 활동하는 데 교리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데는 일치하고 있다.
5. 산업선교회 목사들이 하는 방법이 좋지 않지만 예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6. 한국 천주교 안에서 여러 가지로 산업분야에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선언이 발표되었다(예 : 우리 사회의 신조, 주교단공동교서, 정의 평화에 대한 선언, 명동성당 사순절 강연 등이 모든 것이 활

현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노동조합의 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의식화훈련, 노동조합 지도자훈련,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 한국노총과 협력, 주간 노동계동향 방송 프로그램, 평화시장 노동자들을 위한 ‘평화교실’ 운영 등과 같은 노동자와 도시빈민들에 대한 교육활동 등이었다. 그러나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계엄 선포로 활동이 중단되어 10월 20일에 해체를 결의하였다. 1973년 3월 6일에 ‘에큐메니칼현대선교협의체’(영어 명칭은 그대로 유지)로 바꾸고 이사장 박형규 목사, 사무총장 조승혁 목사 체제로 재출발하였다가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와 함께 해체하고 1975년 2월 8일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체’(Korea Christian Action Organization for Urban and Rural Mission)를 창설하였다. 즉, 처음에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단체로 창설하였으나, 곧이어 개신교만의 선교단체가 되었다. 이후 가톨릭교회는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들에게 협조하였다.

동을 촉구하고 있다).

7. 한국의 기미독립운동에서 천주교가 사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할 때 교회는 억눌린 대중을 위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과 개신교와 함께 활동해야 된다.

이와 함께 공동 활동할 때의 문제점, 즉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산업선교회와 함께 활동할 때 항상 가톨릭의 힘을 이용하면서도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지 않고 그들의 간판을 내세우고 있어 일치운동이 안 된다.
2. 공동활동을 이유로 외국에서 활동기금에 원조를 받아쓰고 있는데,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아무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3. 개신교 제도에 목사들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제도로서 목사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 좌우대립이 생겨 분열된다.³⁷⁾

이를 바탕으로 노사분규나 노동자교육 프로그램도 경우에 따라 협력기로 하여 가톨릭 안에서 기업주모임, 성직자교육, 가톨릭노동청년회 운동지원, 노사분규 등에서 개신교 목사들과 함께 활동할 경우 서로 분야를 나누어 해결토록 노력하기로 하였다.³⁸⁾ 개신교와 협조관계는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들과 관계를 지속하였다.³⁹⁾

37) 이 점에 대하여 도요안 신부는 다음과 같이 술화하였다. 즉, 공동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어려움은, 첫째로 도시산업선교회는 많은 활동 속에서 가톨릭 회원들이 함께 하는데도 모든 것을 그들의 명칭으로 또는 그들의 견해에 따라 활동하였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 회원들이 같이 연대했는데도 동등한 반려자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성명서를 낼 때 우리의 의견은 묻지 않고 발표한 후에 연락해 주는 일 등이다. 두 번째로 개신교와 가톨릭의 제도에는 차이가 있어 가톨릭은 개신교처럼 빠르게 많이 결정하지 못한다. 가톨릭은 여러 번 회의를 거친 후 결정된 사항으로 활동하는 데 반해 개신교는 빠른 결정과 즉각적인 활동으로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도시산업선교회는 노동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금방 결정하고 활동할 수 있지만 가톨릭의 구조는 여러 분당, 교구 안에서 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진보적인 교회로 즉시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지만 우리들은 진보와 보수가 함께 있어 차이가 있었다. 도시산업선교회는 목사, 실무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고 많은 면에서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였던 반면, 가톨릭의 평신도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사도직의 교육방법은 생활반성이므로 많은 경우 빠른 결정과 즉각적인 활동을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사회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주입식을 중심으로 교육한 개신교와 생활반성을 위주로 한 환경사도직의 가톨릭 사이에는 서로 다른 교육방법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도요안, 같은 책, 76쪽.

38) 도시산업사목연구회 보고서, 1972년 3월 16일자.

39) 도시산업사목위원회 보고서, 1973년 12월 13일자.

✱ 제3절 사제와 신학생 양성

1. 산업사목연수회와 노동사목 실습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세미나와 사목실습은 박성종 신부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지도신부를 맡을 때부터 지속되어 온 주요사업이었는데, 노동사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제들을 양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제들의 양성은 신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으므로 노동사목을 지원하는 신학생들과 노동사목에 관심이 많은 기성사제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였다. 즉, 신학생·부제·수도자·기성사제 중에서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하여 1년에 두 번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뒤에 각각 공장에 들어가 3개월 간 직접 노동을 하면서 노동자들과 접촉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더욱 깊이 알고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뚜렷이 자각하게 하였다.

1) 부제학교

1971년 7월 26일에 가톨릭여학생관에서 신학생·신부·수녀·평신도 등 40여 명이 모여 강의를 수강하고 패널토의를 한⁴⁰⁾ 뒤에 서울대교구 부제 7명이 27일부터 29일까지 삼립빵·드레스미싱·방립방직·한국모방 등에 파견되어 실습하였다.⁴¹⁾ 부제들은 현장체험 결과에 대해 적적으로 만족하였으나, 노동기간이 짧은 데다 처음부터 지도자라고 인식한 것이 흠으로 작용하였으며, 산업사목연구회에 대한 기대가 큰 데 비하여 노동하는 동안 프로그램이 잘 안 되었고 신부들의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실습이 끝난 뒤 부제들의 태도가 달라져 이후 지원자들만 받아서 공장에 파견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⁴²⁾

원하는 부제들을 중심으로 한국모방(직포부), 재건대(고철), CO(난곡), 돈보스꼬청소년센

40) 1. 개회식(김수환 추기경), 2. 발전하는 산업사회와 한국 경제의 문제점 강연(박영기 교수), 3. 노동의 신학적인 의미(패널 토의: 박성종 신부 사회) 1) 성경에 나타난 노동관(박상래 신부), 2) 교회문제와 사회문제의 역사적인 배경(최용록 신부), 3) 사목 방향의 전환(한중훈 신부), 4) 노동계의 평신도로서 교회에 대한 기대(정양숙), 4. 폐회 및 부제반노동 환송파티.

41) 도시산업사목연구회, 보고서 1972년 10월 18일자.

42) 산업사목연구회, 모임보고서 1971년 9월 28일자(부제학교 노동실습 평가).

타 등지에서 현장체험을 하였으며⁴³⁾, 그 가운데 재건대에서 활동하는 부제는 사회에서 밀바닥으로 취급되는 그들의 처지를 많은 교회에 알려 인간을 회복시키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도록 노력하였다.⁴⁴⁾

2) 신학생 산업사목연수회

기계문명으로 유린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로써 고양시키며, 올바른 사회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원리와 실천방법을 연학과 체험을 통해 연구·개발하는 신학생들의 산업사목연수회를 1971년 6월 28일에 개최하여 ‘사회학 요론 연구’를 방학 동안 연구하였다. 8월 19일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지도신부인 한종훈 신부를 초청하여 산업문제연구의 기초작업을 논의하고, 프로그램작성과 운영문제 등을 결의하였다. 9월 20일에 2학기 연구과제를 분담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를 방문하였으며, 9월 29일에 회칙 『새로운 사태』와 『지상의 평화』로 제1차 연구발표를 하고, 서울대교구 산업사목위원회 위원장인 도요안 신부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업문제연구회가 1971년 9월부터 대신학생 8명으로 구성된 ‘산업사목팀’을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방학을 이용해서 공장노동 경험과 노동조합, 산업선교회 경험을 쌓았는데, 이 때부터 시작된 훈련과 실습 프로그램은 노동조합교육과 현장훈련, 공장실습, 지역사회조직 등으로 산업화하는 도시 안에서 선교활동에 대한 신학생의 의식계발에 중점을 두었고, 사제가 되기 전에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이후 후계자를 계속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자체로 활동하고, 도시산업사목연구회가 방학 중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와주었다.

도요안 신부, 프라이스(Basil M. Price, S.J., 1923~2004) 신부, 박영기(朴榮基, 토마스 모

43)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9월 10일자.

44) “사당동 재건대에 나가고 있다.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조직에서 볼 때 개인적인 입장, 즉 영입이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목이나 부두목이 부정을 행하는 때가 많다. 재미처럼 일해서 벌은 돈을 하루 저녁에 도박(화투)을 하여 다 잃은 경우가 많으며, 으레 그러려니 하는 풍토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 불을 켜다가 가스통이 터져서 화상을 당한 경우 돈이 없어 치료도 못 받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쓸 수 있도록 저급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성인이 약 20명 정도이며, 그들의 환경은 매우 불결하고 10대 소녀들이 모여들어 밤이면 불건전한 상태이며, 이들의 직업명은 대부분이 성병환자이다 ... (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11월 14일자).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부제학교를 설립하고 부제들에게 직장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도시산업사목연구회에게 이 과정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모든 부제들을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으므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도요안, 같은 글, 73쪽.

어, 1933~2001) 교수 등이 1971년 12월 27~31일에 노동사목을 위한 신학생 프로그램을 만
들고 사제들,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북부연합회 대표들과 함께 교육하였다. 5일
동안 산업문제 전반의 국가계획과 노동조합 문제를 수강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동향
이 변동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노동자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토론했다.⁴⁵⁾

1972년 1월 1일부터 신학생산업사목팀을 공장에 파견하였다. 청계피복노동조합에 2명, 한
양섬유회사에 2명,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에 2명 등을 파견하여 공장경험과 노조실태, 개신교
중심의 산업선교실태 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들은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침식을 함께 하
며 생활보고를 하고 산업사목 훈련을 받았다. 여름방학에 을지로 5가에 있는 가톨릭노동청년
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에 신학생들이 거주하면서 양 노엘 신부의 지도를 받으며 청계피복
노동조합 2명, 낙산아파트지역 사회개발(CO) 2명, 도시산업선교회 2명 등이 노동사목 실습을
전개하였다.

1973년 겨울방학인 1월에 신학생팀 훈련을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영등포도시산업선
교회 등지에서 실행하고, 여름방학에 신학생산업사목팀(서울대교구 2명, 인천교구 2명, 살레
시오회 2명)이 난곡공소에 파견되어 김혜경의 지도로 실습하였다.⁴⁶⁾ 이어 10월 19일에 가톨
릭대학 신학부에서 산업사목팀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신학생양성 프로그램은 노동조합교육과 현장훈련, 공장실습, 지역사회 조직 등으로
산업화하는 도시 안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신학생 의식계발에 중점을 두고 사제가 되기
전에 문제의식을 갖도록 교육하였다. 신학교 안에서 후계자 양성을 계속하기 위해서 신학생들
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위원회는 방학 중 프로그램에서 경제문제 등만 협조하였다.⁴⁷⁾

45) 이 때 교육과정은 노동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기초이론과 실무과정들인 한국경제론, 회의진행법, 인간관계
론, 노동법,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종업원 경영참가 제도, 사회원리, 노동경제, 공산주의비판, 세법해설 등이었다.
도시산업문제연구회가 서울대교구장에게 보낸 1971년 12월 2일자과 그 이후의 공문 참조.

46) 자세한 내용은 제7절 CO분과 참조.

47) 이 신학생 양성 프로그램은 1972년부터 가톨릭대학 신학부 교수인 최창무(崔昌武, 안드레아, 1936~) 신부가 정
식으로 첫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학생들 중의 몇 명은 이 분야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노동조합, 가톨릭노동청년회, 도시빈민(창신아파트),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등지를 직접 찾아가 견학하고
활동하였다. 이런 현장체험이 동기가 되어 사제수품 이후에도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 도요안, 같은 책, 73쪽.

2. 프라도사제회⁴⁸⁾ 회원양성



뒷줄 왼쪽 오영진 신부, 오른쪽 도요안 신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70년대는 산업현장의 인간화와 복음화를 위해 노동사목을 전담하는 사제가 절실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그간 노동사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적극 투신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과 이들의 복지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사목자들이 늘어났지만, 노동사목을 전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웠다.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현장에 노동자로 취업하여 노동자들과 함께 살면서 노동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프라도사제회에 신학생들을

파견하여 노동사제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한국교회는 프라도사제회로 신학생을 파견하는 것이 처음이므로 1차로 2~3명의 신학생을 보내고, 이들이 돌아와 사제가 된 이후에 한국에서 신학생을 훈련하도록 하는 양성계획을 수립하였다.⁴⁹⁾

1973년 1월 25일에 4명을 선발하여 심사한 결과 그동안 노동현장에 파견되어 실습하던 신학생 가운데 평가가 좋은 이용유(李庸儒, 베네딕토, 1945~1981)와 다른 신학생 1명 등 2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두 신학생들은 최용록 신부의 추천과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1973년 6월 18일에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이용유 신학생은 2년간의 노동사목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1975년 7월 24일에 프라도사제회의 오영진(Olivier Berrangar, M.EP.) 신부와 함께 귀국하였으며, 9월 16일에 사제수품을 하고 대방동성당 보좌신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⁵⁰⁾

48) L'association des Prêtres du Prado. 앙투안 슈브리에(Antoine Chevrier, 1826~1878) 신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1860년 12월 10일, 프랑스 리옹(Lyon)에서 설립한 재속사제회: 한국가톨릭대사전 12, 9,042쪽.

49)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로, 언어습득문제는 한국에서 기초과정을 하고, 프랑스에 들어가 6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배우도록 하였는데, 더욱 빨리 언어와 풍습을 배우고 노동신학 정신도 이해가 빨라지도록 훈련받는 동안 각기 나누어 기존 프랑스팀에 들어가 생활하게 하였다: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2년 10월 18일자.

✻ 제4절 수도자 양성과 활동참여

1. 버스 안내원들을 위한 사업과 세미나 개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1970년 4월 29일에 사회문제로 비화한 뽕땅⁵¹⁾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971년 2월 15일에 버스안내원 실태조사 결과를 신문에 보도하였다. 도시산업사목연구회는 이러한 선행작업을 바탕으로 1971년 5월 24일에 윤순녀로부터 서울시내버스 안내원 실태보고를 듣고, 이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도시산업사목연구회는 안내원합숙소에서 교양강좌를 하는 노틀담수녀회⁵²⁾와 성가소비녀회가 버스회사와 안내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음에 주목하여 1971년 6월에 서울시내버스안내원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수녀들과 윤순녀 등이 전문팀을 구성하였으며, 9월 25일에 공동문제발견과 교육방법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⁵³⁾ 이어 1971년 10월에 서울버스지부와 안내원들

50)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5년 10월 10일자. 이용유 신부는 대방동성당 보좌신부를 역임한 뒤, 1977년 1월에 도림동성당 보좌신부로 전임하였다가 1978년 8월에 도림동성당 제17대 주임신부로 임명되었다. 1980년 5월 15일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로 선임되어 노동사목에 주력하다가 1981년 3월 15일에 선종하였다: 가톨릭대사전 9, 7,034쪽. 이용유 신부가 사제수품과 동시에 프라도 1차 서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프라도사제회가 시작되었고, 신학생들을 프랑스 프라도사제회로 유학시킨 것은 이용유 신부와 또 한 명의 신학생뿐이었다. 이용유 신부가 학업을 마치고 회원으로 서약함으로써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51) 서울대교구 돈암동성당색션의 이란희(안젤라) 투사가 ‘뽕땅’에 대한 죄의식과 뽕땅을 하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이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버스안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다른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당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총재인 지학순 주교가 “교회법으로 정당한 생활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뽕땅’이 불가피하므로 죄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다른 단체도 이 발언에 큰 공감을 나타냈으며, 신문지상(경향신문, 1970년 2월 13일자)에도 보도되는 등 버려지고 비난받는 버스안내원들의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203쪽.

52) 버스안내원들은 대부분은 무작정 상경한 아가씨들이었으며, 그녀들은 작은 기숙사에서 기숙하며 적은 임금을 받고 더위와 추위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였다. 더욱이 버스승객들과 기업주, 운전사들의 무시와 학대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안내원들이 수급한 돈을 뽕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센타(몸수색)를 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도 받았으며, 자주 구타당하고 회사 남자사원들로부터 성적인 유희물로 전락되기도 하였다. 수녀들은 이런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안내원들의 회사와 기숙사를 직접 찾아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방법 그리고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꽃꽂이, 요리 등을 가르쳤으며, 그들의 육체·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외된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옹호하였다: 도요안,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역사와 사목적 고찰, 가톨릭대학 출판부, 신학과 사상, 제4호(1990/12), 가톨릭대학 출판부, 70~71쪽. 노틀담수녀회는 버스안내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해마다 12월에 계동수녀원에서 교양강좌를 수강한 버스안내원들의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53) 도시산업사목연구회 모임 보고서, 1971년 9월 28일자. 이하의 글은 산업사목연구회의 해당시기모임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한 것이다: 필자 주.

의 인권과 교육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도시산업사목연구회는 수녀회들이 노동자들의 인권회복과 전인적인 성장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에 주목하여 1971년 11월 11일에 교리신학원에서 ‘산업사목분야에서 수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노틀담수녀회 3명, 성가소비녀회 6명, 살레시오수녀회 2명, 예수의 작은 자매회 2명,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5명,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3명, 전교자의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1명, 한국순교복자수녀회 3명, 동정성모회 1명, 성심회 1명, 성 바오로 딸 수녀회 2명, 메리놀 수녀회 1명, 가톨릭노동청년회 4명, 신학생 11명, 세한버스 부녀부장, 한성운수 부녀부장, 동양교통학원장 등과 도시산업사목위원회 도요안 신부, 박병윤 신부, 박성중 신부, 최용록 신부, 김철규 신부 등이 참여하여 수녀들을 위한 산업사목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사목세미나에서 종합토론을 바탕으로 각 수도회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하였다. 동정성모회는 정릉에 있는 공장을 방문하는 동시에 산업사목위원회를 소개하고 수녀원 내에 산업사목분과 설치를 건의하기로 하고, 성심회는 감화원에서 나오는 소녀들에게 기술을 교육하여 취직시키기로 하였으며,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도시집중을 막기 위해 농촌에 가서 일하기로 하였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효창동수녀원 주변공장을 방문하여 활동하기로 하고, 성가소비녀회·노틀담수녀회·살레시오수녀회는 당시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산업사목에 관계하는 수녀들의 활동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산업사목에 종사하는 수녀들을 갑자기 철수시키거나, 산업사목의 중요성을 인정치 않아 비협조적인 수녀회들도 있었으며⁵⁴⁾, 산업사목에 대한 수녀들의 활동이 서로 연결되지 않기도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몰하기도 하였다.⁵⁵⁾ 이렇게 다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산업사목을 위한 수녀들의 활동은 확산되었다.

수녀들을 위한 산업사목세미나 때마다 버스안내원들의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많은 수녀회들이 참여하자, 1972년 8월 9일에 수녀장상연합회 사회사업분과가 버스안내원들의 교재를 통일하기로 하였다. 수녀회들은 교육과 함께 버스회사 부녀부장과 정기모임을 하고, 야유회를 통해 버스안내원들의 인권을 회복하며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1972년부

54) 도시산업사목연구회는 서울대교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녀회에 권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즉, 산업사목에 파견한 수녀들을 갑자기 철수시키지 말 것, 담당수녀들을 철수시킬 경우 후임자를 반드시 보낼 것, 산업선교를 할 수 있는 수녀들을 다른 분야로 전보치 말 것 등이었다. 1972년 5월 24일, 위원장 도요안 신부가 서울대교구에 보낸 공문.

55) 도시산업사목연구회장 도요안 신부가 1972년 12월에 서울대교구청에 보낸 공문.

터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수녀단의 이름으로 수녀들의 모임을 개최하고, 자신들의 공식적인 활동을 산업사목팀(성신회) 지도, 버스안내원들에 대한 교육활동, 가톨릭노동청년회 팀 지도, 노동자기숙사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매월 연구회를 개최하여 상호이해와 협조를 도모하였다.⁵⁶⁾

1973년 말에 착한 목자회의 로즈 빌지리아 수녀와 손 수녀, 메리놀수녀회의 문 요안나 수녀, 성가소비녀회의 김 골룸바 수녀와 신 도로테아 수녀,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수녀회의 단론 마가렛 수녀와 조 엘리사벳 수녀, 포교 성 베네딕토수녀회의 박 벨틸라 수녀,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의 류 마리아 도미니카 수녀,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의 박 멜세스 수녀, 한국 순교복자수녀회의 신 요한 수녀와 최 루시아 수녀, 노틀담수녀회의 신 프라체스카 수녀, 살레시오수녀회의 이 세실리아 수녀와 민 아나스타시아 수녀, 성체회의 권 비안네 수녀, 성심회의 손인숙 수녀 등이 적극 활동하였다.

‘가난한 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선교적 신학 연구회’를 1974년 1월 25~27일에 돈보스코 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첫째 날 제1강의는 ‘가난한 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선교적 신학 원리’라는 주제로 문동환 박사가 맡았으며, 제2강의는 ‘현대사도의 기초신학과 사회참여’를 박형규 목사가 강의하였다. 둘째 날 제1강의 ‘현대사회 속의 참된 크리스천상’을 도요안 신부가 담당하고, 제2강의 ‘지역사회 속의 크리스천의 임무’를 권호경 목사가 담당하였다. 셋째 날은 ‘지역사회와 직장 내의 문제점을 통해서 본 크리스천의 사명’에 대한 주제로 안광수 목사, 박순희, 김혜경 등이 패널토의를 하고, 그룹별로 토론한 뒤 이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1975년 7월 14일에 본당활동 수녀들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톨릭대학 신학부 오경환 신부가 평가하고 김 미카엘, 박순희, 송옥자, 백월현 등이 패널토론을 하였다. 그 해 8월에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수녀모임에 참석하여 ‘가난한 자와의 대화’, ‘아시아의 종교와 대화’, ‘천주교회의 토착화’ 등을 주제로 토의하였는데, 수녀들은 가난한 자들과 같이 살거나 같이 있지도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그들과 동질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 자기 나라에 돌아가 실천하기로 하였다. 이어 원조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나, 자립할 수 있도록 가치를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6)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 정기모임 보고서, 1973년 11월 14일자.

2.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와 이향노동자교육센터

버스안내원들에게 교양강좌, 꽃꽂이 등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대개 연고자 없이 무작정 상경한 어린 소녀들이 대부분인 버스안내원들을 자립하거나 혼인할 때까지 보호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시키도록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필요는 절감하지만, 수녀회들 모두 기숙사를 설립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⁵⁷⁾

1971년에 살레시오수녀회가 신길동에 마자렐로센터를 개설하고 버스안내원들을 중심으로 돌보고 교육하였으며, 1974년에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수녀회가 가리봉동에 이향여성 공장노동자들을 위한 선화기숙사를 개설하였다⁵⁸⁾.

3. 성신회 설립과 프라도수녀회 한국진출



문 요안나 수녀

가톨릭노동청년회 출신 여성노동자들 가운데 사복을 입고 공장에 다니면서 수도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생겨났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들의 뜻을 이루어 줄 만한 적합한 수녀회가 없어 1973년 5월, 가리봉동에 집을 얻어 ‘성신회’라는 공동체를 설립하여 메리놀수녀회 문 요안나 수녀와 유 메리루 수녀에게 지원자 3명을 지도하게 하였다. 이들은 수도생활을 하면서 공장에 출근하는 노동자로 살았다.

57) 한국사회는 학생들의 기숙사에 관심이 많아 여러 기관들이 운영하였으나, 노동청소년들의 기숙사는 버스회사 기숙사 외에는 거의 없었다. 학생들은 공공요금에서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노동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똑같은 요금을 내듯이 학생들이 온갖 특혜를 받고 학업에 전념하던 것에 반해 노동청소년들은 무관심, 냉대 속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으로 살았다. 수녀회들은 이렇게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밀시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노동자기숙사가 절박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수녀회마다 목적하는 사업이 다르고, 의욕이 있다고 해도 여건이 허락지 않는 등 모든 수녀회가 기숙사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었다. 필자 주.

58) 이렇게 두 수녀회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가 공장지역(성수동)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여 1974년 11월 14일에 도시산업사목위원회의 정기상임위원회 모임에서 수도회나 교구청에 건의하기로 하고, 북부연합회에 관계지역에 있는 공장실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정부기관이나 사회기관 또는 다른 교회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대한 실태, 노동자들이 원하고 있는 실체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조사하여 완료한 뒤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모임 보고서, 1974년 11월 14일자.

한편,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프라도수녀회 수녀들을 한국에 초청하였다. 1974년 5월에 프라도수녀회의 마리 테레사 수녀가 방한하여 노동자들과 공장, 지방을 두루 살피고 우리 노동계에 깊은 감동과 인상을 받았으며, 가리봉동의 성신회를 방문하고 1975년 8월 28일에 프라도수녀회 프랑스인 수녀 안 테레사와 도 모니카 등 2명이 성신회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성신회 회원 3명은 떠났으나, 1977년 4월 28일 청원기를 시작으로 프라도수녀회가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⁵⁹⁾



프라도수녀회 첫 회원들

59) 도요안, 같은 글, 74쪽; 한국가톨릭대사전 12, 9,044~9,046쪽.

✻ 제5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

1. 남·북부연합회 분리와 적극 활동



봉천동성당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뒷줄 왼쪽 첫번째 도요안 신부)

1970년대에 대도시 인구가 팽창되면서 청소년노동자도 급증하자,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들은 호황을 누리며 급격하게 발전하였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준수, 임금인상 등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있었고,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복지향상 등을 증

대시키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당시의 고난을 밑거름 삼아 앞날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매진하도록 희망을 고취시키거나, 이들을 전인적으로 교육하여 자신과 일터, 나아가 사회까지 복음화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자로 성장시키는 기관이나 단체는 드물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환경은 가톨릭노동청년회에게 자신의 존재목적과 사명을 환기(喚起)하여 회원들과 지도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시켰으며, 이들의 헌신적인 활약은 회원들과 팀, 섹션을 증가시켰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교구마다 하나의 연합회를 형성하였지만, 서울대교구는 다른 교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자들이 많았는데, 신자들이 늘어나고 일터와 이 일터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과 팀, 섹션들도 많아졌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과 팀, 섹션의 양적인 증가는 적절한 양성과 효율적인 활동 등에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여⁶⁰⁾ 1962년부터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지구와 북부지구로 운영하던 것을

60) 즉, 서울시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표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회원도 많아 다른 교구에 비하여 지역적 단위가 높아 전국본부단위 투표권 행사에도 영향이 있었다.

1970년 5월 17일에 지구를 연합회로 승격시켜 남·북부연합회로 하고, 10월 29일에 최용록 신부와 도요안 신부⁶¹⁾를 각각 지도신부로 임명하였다.

2.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참여와 활동

1)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식기구 편입

도시산업사목위원회가 1972년 10월 18일에 위원들을 사제·수도자·평신도로 확대하자, 전국 본부 지도신부와 서울대교구 남·북부연합회 회장들이 정식회원, 전국회장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서울대교구가 지원하던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 활동기금을 도시산업사목위원회의 재정지원에 포함하였으며, UNIAPAC에서 원조를 받으면 직접 교구에 반납하게 하였다.⁶²⁾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사무실(을지로)

61) 도요안 신부는 1968년 5월에 도림동성당 보좌신부로 부임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지구를 지도하였으며, 1970년 1월 2일에 도림동성당을 서울대교구에 인계하고, 돈보스꼬청소년센터 경리로 부임하여 본격적으로 청소년 노동사목을 시작하였다.

62) 도시산업사목연구회 모임 보고서, 1972년 5월 18일자.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는 전국본부와 사무실을 함께 쓰다가 1972년에 북부연합회 지도신부인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양 노엘 신부가 을지로 5가에 있는 목조건물 구입하고, 이향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무실도 옮겼다. 이 을지로 5가 집은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본부, 이향근로자 숙소, 까르맹야간학교, 노동자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2) 활발한 교육활동



1970년대 간부교육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사제와 신학생들을 위한 산업사목교육에 함께 참석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가 있는 을지로 이향자의 집에 신학생 산업사목팀이 파견되어 교육을 받는 등 노동문제에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였다.⁶³⁾

1972년 2월 20일에 한국모방 안의 가톨릭신자 모임인 성우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 그리고 쉼미코 노동자와 그 밖의 여성노동자 50명을 살레시오수녀회에서 노동조합지부대의원대회와 클럽활동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1973년 10월 20~21일에는 청계피복지부 여성노동자 간부들을 교육하였다.

3) 동부연합회 분리와 기숙사 설립

1970년대 성수동지역은 한강이북의 중요한 산업지역으로 북부연합회가 조직을 확대하여 팀과 섹션들이 늘어나자, 성수동·화양동·천호동지역을 분리하여 동부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북부연합회는 1973년 11월 14일의 정기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연합회 분리를 공식으로 요

63) 도시산업문제연구회가 서울대교구장에게 보낸 1971년 12월 2일자과 그 이후의 공문 참조.



선서기념(1970년)

청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 4월 30일에 북부연합회를 분리하여 동부연합회를 설립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는데, 연합회가 아닌 ‘동부지구’로서 활동하는 것을 연구하기로 하고⁶⁴⁾, 위원장 도요안 신부가 연합회의 설립에 따르는 제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과제의 근거로 카다인 추기경과 국제모임에서 천명된 가톨릭 액션의 몇 가지 근본원칙을 서신으로 제시하고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에게도 의견을 구하였다.

도요안 신부가 제시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위원들이 활발히 토론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1974년 7월까지 보류하기도 하였지만⁶⁵⁾, 결국 임시간부를 선정하여 활동하게 하고⁶⁶⁾, 동부연합회 대표 이경심이 도시산업사목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⁶⁷⁾ 이 회의에서 북부연합회가 성수동을 중심으로 노동자기숙사를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하여 기숙사가 없어 직원들이 박봉을 털어 방을 구하기 어려워 작은 방에 여러 명이 겨우 잠만 자거나, 앞날에 대한 기약 없이 눈앞의 편의 때문에 동거·혼숙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⁶⁸⁾ 이 안건에 응답할 수 있는 수도회, 교구청 등에 건의하기 위하여 가톨릭

64)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1974년 4월 30일자.

65)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5월 22일자.

66)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9월 10일자.

67)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10월 10일자.

68)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보고서, 1974년 6월 6일자.

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에 다음과 같은 사전조사를 요청하였다.

1. 관계지역에 있는 공장실태 조사
2.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생활면 대우 문제)
3. 정부기관이나 사회기관 또는 다른 교회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실태조사
4. 노동자들이 원하는 실제문제(요구점)

4)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문제

1970년대 이후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이 확대되고, 참여한 노동문제에 자주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는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때 팀, 섹션, 본당, 교구연합회 등의 단계적인 절차과정을 무시하고 전국회장들이 독단으로 처리하거나 개신교 선교단체들과 공동으로 의견을 표출할 때 먼저 지도신부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개신교 선교단체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자주 생겨났다. 1973년 5월 23일에 도시산업사목위원회의 박성중 신부, 박병윤 신부, 양 노엘 신부, 김수창 신부, 염수정 신부, 도요안 신부 등 사제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남녀회장에게 통보하였다.



본 도시산업사목위원회는 1971년 1월부터 서울대교구에서 산업의 중심인 서울지역 내 산업과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설립됐습니다. 그 위원은 주로 가톨릭노동청년회 운동을 지도하는 신부와 평신도로 구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관심 있게 보고 또 교회의 중요한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전통적인 방법이 가톨릭노동청년회 생활변화·환경변화·사회변화인데, 먼저 각 개인의 생활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생활 환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서 깨닫는 상태, 즉 의식계발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높은 위치에서 지시나 명령을 받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의 모임과 복음의 힘을 통하여 밑바닥에서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입니다.

요즘을 와서는 한국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방향이 전국본부에서 각 연합회와 섹션의 의견을 자주 듣지 않고 활동하는 경향을 본 연구회에서는 주목해 왔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 본회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 지시한 활동이 때때로 마땅한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방법과 맞지 않으므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계발과 다른 이의 지시나 명령 없이 그리스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남에게 바치는 정신을 양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물며 충분히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원의 마음준비, 그들의 판단력 없이 필요한 간부나, 지도신부를 거치지 않고 그들을 활동시킨다면,

- 1) 그들의 희생될 마음의 준비나 판단력이 모자라는 결과를 초래하면 그들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 2) 또한 중간 지역간부와 조직은 쓸모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회에서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에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전국본부가 서울지역 내 연합회 섹션 팀과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는 지역 내 가톨릭노동청년회 간부, 지도신부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신교와 협조할 때도 위의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1975년 1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도요안 신부가 유럽지역을 방문한 뒤 상임위원회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특히 프랑스·벨기에·독일 등지의 노동자실태와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본부와 가톨릭노동장년회 국제본부를 방문하고 회장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의 결과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본부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의 유대관계가 3년 동안 마비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⁶⁹⁾

3. 노사문제 적극개입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1970년대는 정부든 기업이든 경제성장을 위해서 다소의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로 원가절감과 생산량 증대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노동자·농어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최소한의 생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무시와 몰인정한 태도는 이들의 불만을 누적시켰다.

①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과 교회의 개입

1970년 11월 13일,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이 청계천 한복판에서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면서 죽음으로써 우리나라 노동계와 사회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다.⁷⁰⁾ 이 사건은 노동조건개선, 인권회복에 대한 경종이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청계피복 노동자대표들을 불러 이들의 활동계획, 요구조건 등을 경청하였다.⁷¹⁾ 청계피복 노동자대표들은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성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하는 일을 가톨릭교회가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을 통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고, 전태일과 같이 노동법규에 대해 연구하려 하지 않으며, 남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용기와 의지가 부족하고, 노동문제는 노동자가 해결해야 하므로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반성하면서 청계피복 노동자대표들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즉, 청계피복노동조합에 정인숙(아네스)을 부녀부장으로 파견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 팀을 구성하고, 노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하였다.⁷²⁾

69)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5년 4월 12일자.

70)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79~182쪽;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한국노동운동사, 도서출판 동녘, 1994, 87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1, 47~50쪽 참조.

71)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도요안 지도신부는 벨기에에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이 사건을 접한 도요안 신부가 그 곳 신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자, 그 곳 신부들은 노동자들을 불러 이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라고 충고하였다. 도요안 신부는 귀국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 중립동성당색선의 신현도(안토니오)를 청계천에 파견하여 교회의 관심과 개입을 전달하였다. 도요안 신부, 2007년 5월 1일자 증언.

② 태안산업 박신정(모데스타) 사건

1970년 12월 12일에 박신정(모데스타)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신정이 근무하는 태안산업주식회사가 운영난을 내세워 3개월 봉급을 체불하자, 여성노동자들이 연서(連書)하여 관계기관에 진정하였는데, 주도자 박신정이 업주가 사주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여 다쳤다. 이를 같은 팀원인 장 안나가 회원들과 대책을 협의하여 영등포군로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인권옹호협회에 진정하였다. 이 사실이 지도신부, 전국본부에 알려지자 사건을 기사화하고 호소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와 합의하고, 체불된 임금은 차후 회사사정에 따라 해결한다는 다짐을 받아냈다.⁷³⁾

③ 한영섬유 김진수(요셉) 사건



고 김진수 군 장례미사

1970년 12월 28일에 한영섬유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서울의류지부 산하 한영섬유분회를 조직하였다. 사장으로부터 노조파괴를 지시 받은 공장장이 직원들을 매수하여 노조파괴공작을 맡겼는데, 1971년 3월 18일에 김진수를 드라이버로 머리를 찢어 중태에 빠뜨렸다. 뇌수술을 받은 김진수는 100여 일 뒤인 5월 16일에 사망하자, 한영섬유 노동자 150여 명이 3월 19일부터

72)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79쪽.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1971년 12월에 성탄카드를 판매한 수익금을 청계피복 노동조합지부 교육회관 건립에 보태기도 하였고, 정인숙 등과 같은 회원들의 활동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 된 이들뿐 아니라, 일반노동조합원들도 그들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교회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73)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63쪽.

농성을 벌이고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사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4월 10일에 한국일보가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보도하자, 노총과 검찰, 경찰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섬유노조가 이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종업원 간의 분쟁’으로 규정하자, 영등포산업선교연합회가 노조파괴에 앞장선 직원들의 자술서, 공장장이 이 직원들에게 써 준 각서 등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며, 6월 25일 김진수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기독교학생연맹, 가톨릭학생연맹 등 9개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식이 끝나자 ‘차라리 철폐하라, 노동조건’이라는 만장을 앞세우고 ‘김진수의 죽음은 제2의 전태일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당국과 경영자가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하며 영구차를 앞세우고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계의 발언이 강해지고 한국노총과 종교계는 협력관계에서 대립·갈등관계로 전환하였다.⁷⁴⁾

④ (주)대한주철 천 요셉 사건

1971년 11월 7일, (주)대한주철에 근무하던 천 요셉이 작업하다가 왼쪽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회사는 작업하다 입은 산업재해인데도 서류로는 고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재해보상은 물론 사고 이후 1년이 넘도록 체불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생계마저 곤란해졌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가 전국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각계에 호소문을 발송하여 천 요셉의 재해보상과 생계비 해결을 도와주고자 노력하였다.⁷⁵⁾

⑤ 한국모방 사건



김수창 신부

당시 같은 업종의 노동자들이 일당 450원을 받고 있는 데 비하여 한국모방 노동자들은 320원(양성공은 140원)을 받았으며, 연말상여금은 2년 동안이나 밀렸다. 이런데도 10분 지각에 특근시간 1시간을 공제하여 통제·수탈하였다. 더욱이 지부는 2년 동안 단체협약갱신을 보류한 채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복지후생 개선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해고하여도 모른 채 하는 등 어용노조의 행태를 되풀이하였다.

1971년 초부터 320여 명의 퇴직금과, 임금 중 월 3%를 이자로 받

74)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88쪽; 이원보, 같은책, 2004, 439~441쪽; 한국일보, 1971. 4. 10; 대한일보, 1971. 4. 16; 동아일보, 1971. 6. 26.

75)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64쪽.



이창복

기로 하고 회사에 위탁한 예수금(預收金) 등 7천여만 원과 이자를 채 불하자, 1972년 4월 12일에 여성노동자들이 ‘퇴직금받기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40명분의 퇴직금 314만 원과 예수금 환불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노동청장에게 냈다. 고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회답이 없어 회사와 노동청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계에 지원을 호소하였다. 회사 내 가톨릭신자 모임인 성우회를 통하여 사실을 파악한 도요안 신부와 이창복 전국본부 회장이 윤원희 부사장을 만났다. 그러나 윤원희 부사장이 도요안 신부를 빨갱이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회사가 집단농성자들을 폭행하고, 김수창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지도신부와 전국본부 회장의 면담을 다시 결렬시키자,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와 서울대교구남부연합회, 한국모방 노동자들이 각계에 호소문을 보내고 종교계와 지식인들이 퇴직금채불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회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회사는 노조와 교섭하여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검찰은 구속된 노동자들을 석방하였다. 그러나 그 뒤의 단체교섭에서 업주가 임금인상에 인색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조합원들이 태업을 벌여 회사에 타격을 가하자, 업주는 본공일당을 321원 22전에서 425원, 양성공은 14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여 사태는 일단락되었다.⁷⁶⁾

2) 노동조합 설립 또는 역할회복

사제들은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존권보장,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과 노력을 지지·옹호하였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자신과 직장,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활동하면서 노동조합결성에 힘을 기울였다. 1970년대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직원들의 노동조합활동이 생산증대와 회사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산업합리화를 명분으로 노동조합결성을 원천봉쇄하거나 어용노동조합으로 전락시켜 무력화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지식과 물리적인 힘에서 열세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복지를 향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76) 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64~165쪽;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100~110쪽; 이원보, 같은 책, 454~457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같은 책, 65~67쪽; 가톨릭시보, 1972년 5월 28일, 3쪽; 1972년 6월 4일, 3쪽; 1972년 8월 20일, 3쪽; 1972년 9월 10일, 3쪽.

① 영창실업 노동조합 설립

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1971년 11월 16일에 정릉성당을 빌려 영창실업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업주는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전, 나아가 직장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방해하였으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바로 다음날부터 업주가 주동자를 해고하고 휴업을 강행하여 분규가 발생하였다. 영창실업 노동조합은 1971년 11월 20일, 도시산업사목연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다음날인 21일에 각계에 진정서를 보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였다.⁷⁷⁾

도시산업사목연구위원회 회장 도요안 신부는 정릉성당 장익 신부, 크리스천사회행동협의체 조승혁 목사 등과 11월 21~22일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11월 22일, 가톨릭과 개신교 노동관련단체들의 이름으로 영창실업 사장에게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하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⁷⁸⁾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1월 22일부터 조업에 들어가 노사분규는 일단 수습된 듯 보였지만, 그 뒤 출근한 노조원을 이유없이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비노조원과 접촉을 노골적으로 막는 등 부당한 간섭을 계속하였다.⁷⁹⁾

② 태광산업 노동조합 설립

1970년대의 성수동지역은 노조다운 노조를 결성한 기업이 거의 없을 만큼 열악하였다. 성수동섹션은 태광산업에 박문담(사무엘)을 중심으로 5명이 가톨릭노동청년회 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하였고, 박문담, 김종구(베드로), 이경심(체칠리아), 한완수(골롬바) 등이 1972년 6월 13일에 섬유노조 서울의류지부 태광산업분회를 결성하였다. 업주는 노조간부진들을 구타하거나 구속시키고, 온갖 비열하고 잔인한 행태로 노조를 파괴하고 노조활성화를 방해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업주의 집요하고 야만적인 방해공작을 극복하고 노동조합을 발전시켰으며, 1973년 4월에 광진섬유로 개칭한 회사가 1974년 1월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조합을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었다.⁸⁰⁾

당시 성수동지역 실태는 1974년 제2회 정기총회에서 박문담이 보고한 활동현황을 통하여

77) 전국섬유노동조합 서울의류지부 영창실업분회가 서울대교구 도시산업사목연구회에 보낸 1971년 11월 20일자 공문. 부록 3에 전문 수록.

78) 한국노총 산하 전국섬유노동조합에 근무하는 송옥자의 역할이 컸다: 도요안 신부, 2007년 5월 3일자 증언. 부록 3에 공문 수록.

79)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88~89쪽.

80)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65~169쪽;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102~103쪽; 107~108쪽; 이원보, 같은 책, 459~460쪽; 가톨릭시보, 1972년 7월 23일, 3쪽; 1972년 8월 20일, 3쪽; 1973년 1월 14일, 3쪽; 1973년 12월 2일, 1쪽; 1973년 12월 9일, 3쪽; 1974년 1월 1일, 3쪽; 1974년 1월 20일, 3쪽; 1974년 2월 24일, 3쪽.

잘 드러난다. 박문담은 개인활동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동현실과 가톨릭노동청년회원의 존재이유와 사명, 복음화의 실례를 증언하였다.⁸¹⁾

3) 교육활동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자신들의 존엄한 인격을 각성시키고, 권익을 실제로 획득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였다.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일반회를 통해 개인과 직장, 사회를 변화시켜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을 잘 보여 주었다.



1975년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일반회를 통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소개, 현장활동 속에서 행해지는 교육 외에도 1971년 6월 12일에 미국의 인권운동지도자인 솔 알렌스키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드물어 일반노동조합 간부들도 교육하였다.⁸²⁾ 1972년 1월 22~23일에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의 간부 10

81) 부록 3에 전문 수록.

82) 1965년부터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가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자들과 업주들, 중간관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독특한 교육방법으로 노동문제를 가시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편중되지 않은 시각으로 노동자와 업주 모두를 복음화를 통한 상생의 길로 인도하는 등 이웃과 사회의 복음화를 수행하였다.

여 명을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도요안 신부, 조승혁 목사, 윤순녀, 이 요셉 등이 노동조합 지도자론, 프로그램 작성방법, 인간관계론, 노동조합운영 등을 강의하였으며, 1972년 3월 1일에 한국모방 노조간부와 지도자들을 교육하였다.

4) 외국과 교류

1974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5차 국제평의회는 재정준비가 미흡하여 1975년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오스트리아의 린츠(Linz)에서 열렸다.⁸³⁾ 이 회의는 베이루트에서 결정된 사항의 각국 활동반영 여부, 회의 이후 활동보고와 평가 그리고 성취도 등을 토론했었다. 또한 이민노동자가 대도시노동자에게 주는 영향과 활동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제활동을 수행·조정할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린츠회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비판하고 방향정립과 노동자 문제분석 등에서 전 세계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의 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다. 린츠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인 노동계의 상황을 둘러싼 모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설정은 교회의 공식적인 사회·경제관과 유리되어 찬반논쟁을 유발하였다. 린츠회의는 선언문에서 전 세계 노동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원인, 극복방법 등을 명확히 하였는데, 사회·경제적 모순의 원인들을 계급구조와 착취구조에서 찾아 노동청년들의 조직투쟁으로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린츠회의의 충격으로 각 나라 가톨릭노동청년회들이 분열조짐을 보여 1979년에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평의회가 회원 국가의 1/3 이상의 거부로 결렬되어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⁸⁴⁾

1974년 6월 6일에 개최된 1974년 제2회 정기총회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 지도신부인 김수창 신부가 ‘일본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이웃나라인 일본가톨릭노동청년회의 실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와 비교를 통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역할확인과 바람직한 활동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⁸⁵⁾

83) 우리나라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회장 신현도(안토니오)와 정인숙(아네스), 전 미카엘 지도신부가 참석하였다.

84)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202; 239~240쪽.

85) 부록 3에 보고 전문 수록.

4. 유신체제의 시련과 험난한 투쟁

1) 한국노총의 변질과 갈등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한국노총과 긴밀히 협조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이 유신체제로 사회 각 분야를 통제하자, 한국노총이 자신의 설립목적과 사명을 포기하고 유신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으며, 교회는 이런 한국노총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1973년 12월 31일에 한국모방 사장 백승빈이 노조지부장 지동진을 구타하자, 가톨릭과 개신교 19개 단체로 구성된 ‘신구교노동문제공동협의회’가 1월 5일에 결의문을 발표하였다.⁸⁶⁾ 지동진 구타사건, 한영섭유 김진수 피살사건, 유림통상과 태광산업의 노조간부 구타와 부당노동행위, 마산자유수출지역 일본인기업주들의 집단구타, 버스안내원들에 대한 몸수색, 미국전사업체의 각종 안전 등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사태를 지적하고 정부에 민주헌정질서 확립을, 한국노총과 섬유노조에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하지 못할 바에는 즉각 해체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제2의 기구로 전락한 사실을 노동자들과 전 국민 앞에 사회화라고 요구하고, 교회는 노동사회의 인권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문화공보부가 1974년 1월 14일에 한국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장 앞으로 ‘종교단체 노사분규 불개입 협조’라는 공문을 보내 노사분규에 종교가 개입하는 것을 삼가라고 촉구하였다.⁸⁷⁾ 한국노총도 1974년 1월 19일, 전국 최고간부확대회의의 결의문에서 일부 종교인들이 노동계에 침투하여 선량한 조합원을 선동하고 불법적인 탈선행위와 노사분규, 조직분열을 책동하였다고 규정하였다.⁸⁸⁾

1974년 10월, 종교계가 ‘노동법개악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5일에 ‘한국의 노동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1974년 노총대의원대회와 노동법개정의 문제점을 결의문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한국노총이 1974년 12월 9일, ‘총력안보와 경제건설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성명서에서 “북괴남침위협이 상존하는 절박한 상황 하에서 자

86) 현대경제일보, 1974년 1월 20일자.

87) 조승혁, 1981, 158~160. 부록 3에 공문 수록.

88) 부록 3에 성명서 전문 수록.

기의 본분을 저버리고 경거망동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이익을 해치며 국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부인사들의 혼란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침투행위를 응징하겠다고 경고하였다.⁸⁹⁾

가톨릭노동청년회가 1975년 1월 11일자 동아일보에 광고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관제어용사이비노동단체이며 위원장 등 간부들은 노조의 생명인 자주성과 자율성이 없는 노동귀족”이라고 신랄하게 규탄하자, 한국노총이 1975년 1월 22일 한국일보 광고란에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종교인의 탈을 쓰고 노총과 하부조직 및 조합원 사이를 이간, 분열시키는 성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노조에 사이비 종교세력을 부식시키려는 불순한 책동으로 보고 앞으로 이 같은 책동이 계속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도시산업선교회 예큐메니칼현대선교협의회가 1975년 1월 25일에 ‘한국노총에 보내는 권고문’을 동아일보에 광고로 내 1월 11일자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자주성을 저버린 한국노총 배상호 집행부에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보낸 공개경고문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였다.⁹⁰⁾ 1월 28일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1월 21일의 노총 경고문에 대한 답장인 ‘배상호 노총위원장에게 보내는 고언(苦言)’이라는 동아일보 광고를 통하여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1. 한국노총 배상호 위원장은 과연 어용 사이비 노동귀족이 아닌가?
2. 배상호 한국노총 위원장은 과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지 않은가?
3. 배상호 노총위원장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얼마나 노동자의 권익옹호에 앞장 서 왔는가?
4. 배상호 위원장은 지난 22일자 경고문에서 가톨릭과 기독교를 사이비 종교단체, 불순분자의 집단으로 철저히 응징, 분쇄한다는 등 극한적인 폭력용어를 남용하고 있다.

또한 이 광고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배상호 집행부가 1973, 1974년 노총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용서받지 못할 불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 부패한 정상배들과 결탁하여 노총집행권을 불법으로 차지하였다. 여성노동자들과 운수노동자들이 극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 뿐만

89) 한국노총, 1975: 201.

90) 부록 3에 전문 수록.

아니라, 대한통운 하역노동자들의 임금이 정부고시임금의 5분의 1 내지 6분의 1에 불과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약속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른바 경제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노동 3권을 박탈당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집단해고, 산업재해, 공해, 공단여성노동자들의 인권유린 등 노동자들의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해 실질적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한국노총 집행부의 비자율성과 부조리를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한편, 1975년 3월 10일에 개신교 산업선교 실무자와 신자 156명이 ‘민주노동운동을 위한 자율화 투쟁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노총은 관제·어용·사이비 노동귀족의 도피처이며 부정부패의 복마전으로 전락했다.”고 규정하면서 한국노총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하였다.⁹¹⁾

1975년 후반 한국노총과 종교계의 갈등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1976년 7월에 터진 동일방직 사건을 계기로 재연(再燃)되었다. 한국노총이 1978년 초에 ‘근로조건개선대책실’을 설치하여 종교세력 분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978년 2월 28일에 조직행동대를 결성하고 요원들을 교육하였는데⁹²⁾, 당시 한국노총위원장 정동호가 “우리는 앞으로 종교와 싸워야 한다. 월남전쟁도 종교 때문에 망했다. 1백만 조직의 힘으로써 우리는 행동요원으로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⁹³⁾

한국노총의 종교계에 대한 대응방식은 1970년대 후반에 종교계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영향권에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의 집행부 와해에 집중되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립을 요구하는 조직을 종교계의 지원을 받는 불순세력으로 규정하여 축출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종교계의 도전과 산하조직의 저항에 대한 한국노총의 적대적 자세는 197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고, 정권은 공개적으로 종교계를 억압하였다. 1979년 8월 YH 무역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이 일어나자 한국노총은 산별위원장 공동명의로 노사 문제의 정치적 이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으로 사회혼란만을 초래하는 행위를 절대 배격할 것을 거듭 경고한다.”고 밝혔다.⁹⁴⁾

한국노총은 유신정권을 지지하면서 종교계와 산하조직의 요구는 불순세력에 의한 조직분열공작이라 하여 적대하였다. 그러나 종교단체들이 지향했던 것은 정권이나 한국노총이 규정한 ‘계급투쟁’이 아니라 충실한 노동조합주의의 실천이었으므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⁹⁵⁾

91) 조승혁, 1981: 163-164.

92) 조승혁, 1981: 159.

93) 중앙일보사, 1978: 320.

94) 동아일보, 1979년 8월 13일자.

95) 한국노총, 1990: 118.

한국노총의 종교계에 대한 적대적 대응은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 중단되었지만, 밑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자기 발전의 계기를 스스로 저버렸다.

2) 끝없는 탄압과 권익쟁취

① 한국모방(원풍모방) 노동조합의 회사 살리기와 지속적인 투쟁

1972년 퇴직금반기운동을 시발로 노조민주화를 쟁취하였던 한국모방 노동조합은 1973년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처지에 몰렸다. 당시 회사는 자산액 20억 원에 비하여 은행부채만도 30억 원에 이르러 1973년 5월분 임금마저 지급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회장 박용운이 반사회 기업인으로 지명수배되고 대표이사 박래진이 21억을 횡령하여 도주하였으며, 6월 2일에 부도를 맞은 한국모방이 부실기업으로 낙인이 찍히자, 2,000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은 지부장 지동진을 위원장, 각 부서과장 12명을 부위원장으로 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7일, 부사장 등 4명의 회사간부들로부터 물품 반·출입, 금전출납, 노무관리 등 제반사업의 위탁을 요구하여 실제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수습대책위원회는 공장가동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일은행에 협조와 지원을 호소했다. 상공부가 한국모방에 최대의 협조를 지시하였고 재무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수습대책위원회는 제일은행의 운영자금지원과 감독관청의 협조로 인수·하청이라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가동하여⁹⁶⁾ 7월 21일에 임금을 31% 인상하여 지급하고 추석에는 떡값까지 지불하는 등 회사운영은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

수습대책위원회가 10월 17일에 지난 130일 동안의 운영경과를 보고하고 현금 12,881,871원과 미수금 1,500만 원, 3개월간의 작업계약량을 새 경영진에게 인계한 뒤 해산하였다. 그러나 백승빈 사장 휘하의 경영진은 노조에 약속한 종업원 퇴직금 전액의 은행예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부실마저 초래하여 노조가 엄중하게 항의하자, 1973년 12월 31일에 백승빈 사장이 지동진 부장을 구타하여 1974년 1월 5일에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와

96) 동아연감, 1974: 315.

인권유린에 대한 근본대책을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회사는 1974년 1월 15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백승빈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윤원회를 사장으로 선임하였다, 회사소유주식 190만 주(액면금액 9억 5천만 원) 중 20%인 38만 주(액면금액 1억 9천만 원)를 2천여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노조지부장 지동진을 전무이사로 선임하자, 노조는 2월 15일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주식 38만 주를 전 조합원이 양수하고, 지동진 지부장을 전무이사로 파견기로 결의하였다.

한국 최초의 노사공동경영체제가 출범하여 경영은 정상을 회복하고, 1974년 6월에 방용석을 지부장으로 노조집행부를 구성하여 임금을 30% 인상시켰다. 그러나 누적부채 때문에 회사가 공매처분의 처지에 놓이자, 1974년 10월 11일에 조합원총회를 열어 정부와 제일은행에 대하여 한국모방 정상화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기업을 공매할 경우 노동자 전원의 고용승계, 미지불퇴직금과 고용승계자에 대한 퇴직금 청산, 국민저축금 지급, 회사의 인수인계시 휴업수당 지급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일은행, 재무부, 노동청에 적극 교섭하여 1974년 11월 21일에 제일은행이 모든 조건을 수락하여 12월 27일, 원풍산업그룹에 29억 7천 500만 원에 공매 낙찰되고, 1975년 1월 18일에 원풍산업이 노동조합 요구조건을 수락하였다.⁹⁷⁾

1975년에 첫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계열회사 사적을 들고 나와 한국모방 때의 협약 내용을 무시하자, 노조는 인권침해 금지, 분위기 개선, 공정한 휴가 준수, 공상자(公傷者) 문제를 내세우고 3개월 동안 투쟁하여 요구조건을 성취하였다. 그 후 1979년까지 매년 계속 단체협약으로 노동자의 실질생활이 향상되었다.⁹⁸⁾

그러나 섬유노조는 김영태가 1976년에 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어용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김영태는 1978년 1월 본조의 규약을 일방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산하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원풍노조, YH노조, 반도상사노조만이 반대를 표시했을 뿐 다른 모든 섬유노조 산하조직들이 받아들였다. 원풍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본부규약에 대한 토의를 거부했고, 섬유노조가 동일방직 노조를 사고지부로 규정하는 데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⁹⁹⁾

97) 이원보, 같은 책, 465~467쪽.

98)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222~223쪽.

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같은 책, 65~67쪽.

② 삼립식품 사건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는 1973년에 종업원 2,600여 명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저임금으로 유명하였으며, 휴일도 없이 12시간 주야 맞교대였고, 점심시간마저 없는 ‘살인적’인 사업장이었다.¹⁰⁰⁾ 1968년 10월에 화학노조 삼립식품지부가 결성되었으나, 전형적인 어용노조이어서 많은 노조원들이 대의원 선거를 하지 못하여 지부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조합비는 월급의 100분의 1을 매달 공제하였다.¹⁰¹⁾

노동자들이 1973년 9월 18일에 작업을 중지하고 50% 임금인상과 주 1회 휴무, 장시간작업 시정, 점심시간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3일 동안 농성하였다. 파업이 끝난 9월 20일에 지도급인 정유성이 집회 및 국가보위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그 외에 13명이 연행되었으며¹⁰²⁾, 대표이사도 9월 21일에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창복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회장과 도요안 신부가 9월 26일에 삼립식품을 방문하고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삼립식품 데모주동자들과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회원들이 구속자 석방문제와 노동조건 개선을 협의하였다. 10월 3일에 도요안 신부와 전국본부 이창복 회장이 회사를 다시 방문하여 정유성의 석방과 노동조건 개선을 협의하였다. 10월 7일, 남부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구속자 석방과 노동조건 개선 진정서를 사장에게 전하기로 결의하였고, 10월 12일에 성직자·평신도·수녀들이 돈보스꼬청소년센터에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으로 도요안 신부, 안광수, 이창복을 선출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 임금인상, 상여금 200% 지급, 식당건립 약속 등을 받아냈으며, 대표이사 허창성은 벌금형 3만 원, 정유성은 10월 16일에 3만원 벌금형을 받고 석방되었다.¹⁰³⁾

③ 서울통상 사건

1970년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가톨릭신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 1975년 3월

100) 회사는 1973년 당시 남자의 경우 월평균 24,000원(기본급 일당 423원에 잔업수당, 특근수당 등 각종수당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3년 근무한 한 여성노동자는 실수령액이 18,057원(기본급 6,524원, 잔업수당 4,503원, 휴일수당 2,282원, 야간근로수당 3,030원, 월차 및 생리수당 1,715원)이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1984: 388.

101)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99~100쪽.

102) 검찰은 정유성 등에 대한 기소이유로 “노동자들이 신고없이 농성과 불법집회를 하였으나, 집회에 앞서 노동조합에 건의하거나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보위법에 규정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규정한 보위법 제7조 역시 대통령의 특별한 조치가 없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연감, 1974, 314쪽.

103)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69쪽;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108쪽; 이원보, 같은 책, 461~462쪽; 한국민주노동자연합, 같은 책, 83쪽.



당산동성당 회원들과 염수정 지도신부

31일부터 구로공단과 문래동의 서울통상 산하 2개 가발공장에서 ‘천주교 신자는 노동조합 교육을 받아 노조를 만들 위험이 있다’라고 17명을 강제로 퇴직시켰다.¹⁰⁴⁾ 해고된 이들이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여 복직을 약속 받았으나, 근로감독관과 업주가 이 사건을 교회에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무마하고자 하였다. 당산동성당 김창만(金昌滿, 안드레아, 1933~) 신부가 4월 3일에

회사를 찾아가 “천주교신자라고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하였고¹⁰⁵⁾, 김수환 추기경도 6일에 김 신부로부터 사건경위를 보고 받았으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비열한 종교탄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사건이 표면화한 뒤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통지서를 받고 회사에 찾아가자, 퇴직금을 즉시 반환하고 기숙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복직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즉시 반환할 수 없는 형편이며, 기숙사 입사는 개인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선복직을 요청했지만, 업주는 자기가 제시한 조건을 수락치 않는 한 복직시킬 수 없다고 했다. 여성노동자들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개최한 ‘해고노동자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여 집단해고를 전후해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한 부당압력을 날날이 고발하였다.¹⁰⁶⁾

104) 이들 해고여성노동자들은 ‘서울통상의 천주교신자에 대한 박해실태보고’에서 업주가 3월 말부터 공장 내 천주교신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시작하여 3월 31일 오후부터 한 사람씩 불러다 “성당에 가느냐, 노동청년회를 아느냐?”는 등 질문을 한 뒤 상부지시라면서 퇴직서에 강제로 서명케 했다는 것이다. 가톨릭시보 1975년 4월 13일, 3쪽.

105) 구로공장 공장장이 7일 오후 김창만 신부와 만난 자리에서 천주교신자들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면서 해고자들을 10일까지 일단 복직시키겠다고 말했다. 위와 같음.

106)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69~170쪽; 가톨릭시보, 1975년 4월 13일, 1쪽; 3쪽. 1975년 4월 20일, 3쪽.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가톨릭신자 노동자들이 면목동(4명, 1975년), 영등포 한국마텔(4명, 1976년), 한국산업(6명) 등에서 계속 해고되었다. 신자노동자들의 해고조치는 노사분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보다는 교회와 연계된 노동운동을 완전히 추방하기 위한 선제탄압이었다. 즉, 가톨릭신자는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관계가 있고 이들이 언젠가는 노동운동을 벌일 것이라는 비약된 논리가 구체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가톨릭신자들의 해고로 나타났다.

④ 동일방직 사건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1972년까지 회사의 한 부서 정도로 인식되는 무력한 조직이었으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어용노조 추방운동이 일어나 1972년 5월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어용지부장을 추방하고 주길자를 지부장으로 새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당시까지 섬유노조 산하의 대부분 사업장이 여성들이었는데, 노조의 지도부는 남성이 장악하였으므로 주길자는 한국 최초의 여성 지부장이었다.

1976년 대의원선거에서 업주의 온갖 압력으로 전체 47명의 대의원 중 노조를 지지하는 대의원이 23명만 선출되자, 회사가 매수한 고두영 일파가 7월 23일에 노조간부들을 경찰에게 조사하게 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을 기숙사에 가두어 둔 채 대의원대회를 열고 고두영을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갇혔던 노동자들이 문을 부수고 나와 노조사무실에서 농성하자, 기동경찰이 여성노동자 400여 명을 포위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모두 연행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속내의 차림으로 노총가를 합창하며 저항하였다. 경찰이 경찰봉으로 알몸의 여성노동자들을 구타하고 구둣발로 짓밟으며 72명을 연행하고, 40여 명이 충격으로 졸도했으며, 14명은 입원하고, 정신착란으로 5개월간 치료받은 노동자도 있었다.

동일방직 노동조합이 ‘동일방직사건수습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사회여론화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1977년 3월 3일의 대의원선거에서 민주노조파 대의원들이 다수 당선되고, 4월 4일 대의원대회에서 이총각(루시아)을 지부장으로 하는 민주노조가 구성되자, 회사의 압력으로 조성된 ‘조합원탈퇴 서명운동’을 ‘탈퇴확인 작업’으로 무력화시키면서 노조는 정상이 되었다. 그러나 1978년 2월 21일에 새 대의원 선출공고를 붙이고 노조간부들이 노조사무실에서 철야하며 경계하던 중 업주의 사주를 받은 남자노동자 5~6명이 방화수통에 ‘똥’을 담아와 여성 노동조합원들의 얼굴과 옷에 발랐다. 이어 전국섬유노조가 3월 6일 동일방직 노조를 사고지부로 처리해 버리고, 이총각 지부장과 부지부장 2인, 총무부장 등 4명을 ‘도시산업선교회와 관련이 있는 반조직행위자’라는 이유로 제명하였다.¹⁰⁷⁾

1978년 3월 11일에 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가 여성노동자들의 석방과 신변보호, 어용노조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동일방직 노동자 15명이 명동대성당에서 무기한농성을 시작하고, 3월 12일에 노동조합지부장 이총각이 교회지도자와 신자들에게 노조탄압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이 3월 20일에 명동대성당에서 개최된 ‘교권수호를 위한 기도회’

1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같은 책, 57~60쪽; 한국민주노동자연합, 같은 책, 89~91쪽.

에서 강론을 통하여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사건을 빨리 해결하도록 촉구하였는데, 이 사건의 핵심을 적시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역할에 좌표를 제시해 주었다.¹⁰⁸⁾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는 다음날 김수환 추기경과 뜻을 같이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¹⁰⁹⁾

그러나 동일방직은 1978년 4월 1일에 124명의 노동자들을 임의로 해고하였으며¹¹⁰⁾, 섬유노조 부산지역 지부장 김영태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인적사항을 부산지역 각 기업체에 알려 재취업하려는 노동자를 치밀하게 봉쇄하였다. 이 사건은 1970년대 노동운동 탄압의 형태에서 볼 때 집단해고에 이은 또 하나의 장애물로 소위 ‘블랙리스트’가 노골적으로 표면화한 것이다. 이 사건을 주도하며 시련을 겪은 노조지부장 이충각의 변화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¹¹¹⁾

한국천주교 주교단도 1978년 4월 8일에 ‘노동인권 성명서’를 발표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노동자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용공이라는 벼랑으로 몰아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뜨리려는 업주와 관계당국에게 잔악한 박해를 중지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신장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동일방직사건을 비롯한 노동과 민생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기관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¹¹²⁾

해고당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였으나,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5월 16일에 해고노동자들이 산업선교회 건물을 빌어 동일방직 임시노조를 구성하였다. 7월 30일에 전국섬유노조본부 위원장을 선출하는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김영태가 다시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해고노동자들이 11월에 『동지회보』를 발간하고 장기투쟁에 돌입하여 1980년에 해고노동자들이 다른 민주노조와 공동투쟁을 모색하면서 복직투쟁을 전개하였다.¹¹³⁾

⑤ 인선사 노조결성, 유령노조와 투쟁

인선사는 공책·앨범을 제조하는 회사로 매일 13시간 일하고 7~8년 근무해도 일당이 950원

108) 한국민주노동자연합, 같은 책, 171쪽. 부록 3에 전문 수록.

109)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1985, 69~103쪽;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483~484쪽. 부록 3에 전문 수록.

110)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같은 책, 103쪽.

111)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70쪽. 부록 3에 이충각의 고백전문 수록.

112) 부록 3에 전문 수록.

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같은 책, 57~60쪽; 한국민주노동자연합, 같은 책, 89~91쪽.

에 불과한 저임금에 연·월차 유급휴일제도도 없었다. 또한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작업과정에서 재단기에 손을 잘리는 일이 많았다. 노동자들이 1977년 4월 21일에 화학노조 조직부장이 참석하여 전국화학노조 인선사 지부를 결성하고 지부장에 박문담(사무엘)을 선출하여 상무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튿날 지부장 박문담이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화학노조에 들렀다가 1975년 3월 30일자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전국출판노조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4월 23일에 업주가 박문담 지부장에게 “한 회사에 2개의 노조가 있을 수 없으니 사표를 내라.”고 하여 박문담은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사통신이 “인선사 노조 외에도 출판노조 산하 18개 지부, 1개 직할분회조직 중 동아출판사지부와 국정교과서지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의 상당수가 인선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령조직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여론화하였다. 그러나 노조의 정상화를 위하여 싸워온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쫓겨났으며, 공화당 노동위원을 겸임하던 인선사 사장 신덕균이 7월 20일에 ‘인선사’를 ‘삼고사’로 개명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개신교단체들에게 공동모임을 제의하여 이 문제에 대한 각계의 노력을 통합하여 복직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많은 종교인·지식인·학생 등이 불매운동에 참가하자, 업주가 1978년 6월에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켰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1978년 4월에 긴급집행위원회를 열고 『산업선교는 무엇을 노리나?』(홍지영 저)라는 책이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에게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협의하고 동일방직 사건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과 가톨릭신자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첫째,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은 노동조합운동이 아니며, 또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도 아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가 자기의 문제를 보고 느끼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식화시키는 것이지, 결코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나서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학생·농민·노동자운동은 각각 성격이 다르므로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보아야 한다.

셋째,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임원들의 결정이 없이 개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노동자가 하는 것이지 결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전체 활동은 아니다.

넷째, 산업선교회·사회선교협의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과 분명히 구분되므로 서로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그 단체 나름대로의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충실히 생활하는 것이 곧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이다. 바로 내가
우리 공장에서 활동해야지 다른 회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또 해결할 수도 없다.
여섯째, 상황은 변해도 노동자 문제는 남는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의 의식이 먼저 계발되어야 노동자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¹¹⁴⁾

⑥ YH사건

1966년에 종업원 10명으로 시작한 YH무역은 1970년 종업원 4,000명, 수출실적 100만 달러, 수출순위 15위로 국내최대 가발업체로 성장하였으나, 업주는 상당량의 외화를 도피시키고 자사제품의 외상구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회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하였지만, 4명의 노동자만 해고되었다. 그러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인 이철순(마리아)과 기숙사사감이 연결되어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양 노엘 지도 신부의 도움을 받아 YH무역 노동자들을 교육한 끝에 1975년 5월 24일에 노조를 결성하였다. 회사도 이에 맞서 어용노조를 결성하려 하였지만, 섬유노조 본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노조결성 이후 간부들은 조직확대작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회사는 해고나 전출, 매수 등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였지만, 노조는 농성, 부서이동 감수,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으로 방해를 견뎌냈다. 노조결성 후에 두 번의 공장이전이라는 술책으로 조합원들이 감소되었으나, 회사의 속셈을 알아차린 조합원들은 8시간 농성 끝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노동자들의 착취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던 YH무역은 가발산업의 사양화, 경영부실, 기업주의 해외재산도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1979년 3월 29일에 폐업을 일방적으로 공고하였다. 노조는 폐업조치를 규탄하며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농성투쟁을 하였다. 노조의 기세에 눌려 잠잠하던 회사가 7월 30일부터 시작된 조합원총회 농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월 6일에 다시 폐업을 공고하고 7일에 기숙사를 폐쇄하며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10일까지 수령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기숙사에서 철야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9월 9일 새벽에 신민당사를 찾아가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며 농성하였다. 농성노동자들은 “공장을 폐쇄하려는 회사를 조흥은행이 인수할 것, 회사 돈을 빼돌리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장을 소환할 것, 빨리 기업을 정상화해서 여공들의 생계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경찰이 투입될 때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죽음으로

114)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82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같은 책, 60~61쪽.

맞서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신민당의 적극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농성노동자의 해산만을 강요하던 국가권력은 8월 11일 새벽 2시에 2,000여 명의 경찰들을 신민당사에 난입시켜 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을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김경숙이 의문의 시체로 발견되었다.¹¹⁵⁾ 9월 13일의 신민당사 농성투쟁으로 지부장 최순영, 사무장 박태연이 구속되었으며, 배후조종 혐의로 전 고려대학교 교수 이문영 등 6명이 구속되었다.

YH무역 200여 여성조합원의 신민당사 농성투쟁은 유신독재정권에 결정타를 가한 사건이었으며, 1980년대 노동운동에 커다란 기여를 한 분기점이 되었다. 투쟁의 차원은 비록 직장폐쇄에 항의하는 경제적 차원이었지만, 성과는 유신체제의 몰락이라는 기여로 나타났다. 즉, YH무역노조의 신민당사 농성투쟁은 기회주의적 입장에서 반독재투쟁을 하던 신민당을 강력한 투쟁대열의 선두에 서게 하였고,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제명, 부마민주항쟁을 거쳐 유신독재정권은 붕괴되었다.¹¹⁶⁾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1979년 8월 20일에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의문의 죽음 앞에서 문제의 원인인 반노동자적 경제성장정책과 부패특권의 경제체제를 지적하고 구속된 8인의 석방, 부패특권의 재산과 가족의 해외도피 현황을 비롯한 노동과 사회문제 전반의 공개적인 공동조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¹¹⁷⁾

⑦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블랙리스트는 1978년 동일방직 사건 당시 김영태 섬유노조 위원장이 작성하여 그 해 4월에 각 사업장에 배포한 이래, 민주노조 출신 해고노동자들의 해고사태가 속출하면서 표면화하였다. 개별기업의 제보를 기반으로 기업·노동부·정보기관이 작성하여 각 사업장, 노동부 근로감독관실과 정보기관 등에 비치하였으며, 정보기관에서 기업에 해고노동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즉각 해고시켰다.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들의 취업권리와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동운동

115) 북부연합회는 추도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음과 같은 신자들의 기도를 바쳤다. “아름다운 세계를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인간을 짐승처럼 다루고 기계로만 생각하는 악덕기업주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착취와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들을 반성하게 하여 주소서.”

116)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74~175쪽;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269쪽; 한국민주노동자연합, 같은 책, 95~97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같은 책, 71~73쪽; 李泰昊 엮음, 靑史新書 35 최근노동운동기록, 靑史, 1986, 95~128쪽.

117)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547~548쪽. 부록 3에 전문 수록.

자체를 말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도 금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가 성남에서 발견되었는데, 노동자들의 일거일동을 사찰하고 자료에 명기된 노동자들의 취업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이 만든 방대한 규모의 ‘블랙리스트’였다. 이 블랙리스트는 1978년 6월 10일에 어용노조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성남 고려피혁 노동자들이 구속된 동료노동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찾던 중 노무관리 담당자의 책상에서 쏟아졌다.¹¹⁸⁾ 이 블랙리스트와 함께 발견된 서류들 중에는 관리공단 이사장이 각 기업체 장들에게 보내는 “관리공단에 의식화 근로자들의 명단을 보관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요청하라”는 내용의 협조공문까지 붙어 있었다.

블랙리스트는 6월 28일 인천의 세창물산에서도 발견되었는데, ‘노사분규 관련 노총회관 점거 농성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98명의 노동자의 이름·주소·본적·생년월일·입사일자·퇴사일자·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또한 64명의 이름·본적·학력을 필사본으로 신고 있었다. 이것은 일개 공장에서는 도저히 포괄될 수 없는 방대함과 상세함을 갖추어 경찰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해고노동자들의 재취업기회는 원천적으로 박탈되었는데, 일례로 원풍모방의 경우를 보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¹¹⁹⁾

3) 역할확인 and 활동확대

1970년대 각종 산업단지가 늘어나자 단지 내 노동자들이 급증하여 지역위주의 조직체제로는 기동성 있는 활동을 펴 나가기 점점 어려워져 특수조직인 산업단지연합회 조직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없어 서울북부연합회가 서울동부를 맡고, 서울남부연합회가 구로공업단지를 맡아 산업단지 중심으로 활동을 확대하였다.¹²⁰⁾

북부연합회는 계속 문제가 확대되는 태광산업(광진산업) 노동자들을 성수동성당을 중심으

118) 블랙리스트는 총 763명의 이름·생년월일·해고일자·사진 등 44장의 필사본으로 정리되었으며 노동운동 관련자, 시국사건 관련자들의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한 묶음에는 서울·인천·안양·성남 등 수도권 지역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했거나 시위에 가담한 전력 있는 노동자들의 명단이, 다른 한 묶음에는 ‘문제근로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각종 인적사항과 더불어 증명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나머지 묶음에는 성남 라이프제화와 신생노조의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의 명단, 식품·전자·봉제 등으로 사업장을 분류한 도표에 취업중인 문제 노동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119) 한국민주노동자연합, 같은 책, 104~107쪽.

120) 가톨릭시보, 1973년 11월 4일, 3쪽.



1970년대 남부연합회 야유회

로, 유림통상 노동자들은 화양동본당을 중심으로 교육하고¹²¹⁾, 새로운 팀과 섹션들을 계속 발족시켰다. 또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정기모임을 지속하고, 북부연합회 양노엘 신부 지도로 일반회원들을 계속 교육하면서 지도회원과 예비회원을 양성하여 나갔다. 또한 야간학교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일하며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소식지를 발간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풍과 체

육대회를 개최하여 친목을 다지며, 기도회와 피정에 적극 참석하였다. 남부연합회 역시 도요안 신부 지도로 새로운 팀과 섹션을 조직하며, 현장교육과 피정·기도회 등으로 영성을 키우고, 소풍·체육대회 등으로 친목을 다지며 단단한 조직들로 성장시켰다.¹²²⁾

그러나 그동안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공장 안에 그리스도를 찾자’는 활동원칙으로 활발히 전개하였던 노조결성, 노동자교육, 노동계부조리 고발활동이 초래한 노동계 안의 가톨릭노동청년회 위치, 사회적 이미지 등을 토대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가톨릭노동청년회 근본정신에 입각한 저변활동과 이를 통한 노동자 의식계발사업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그동안 충분하게 교육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서둘러 결성하여 미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와해되고 기업주와 대립해야 했던 방법을 지양하고, 회원들을 철저하게 교육하여 내적 충실을 기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을 계발하도록 하였다.¹²³⁾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관찰·판단·실천의 방법으로 자신을 복음화하고 환경(주변)과 사회를 복음화하기 때문에 자신과 동료들의 인간화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 투신할 수밖에 없으며,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이러한 투신은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뿐 아니라, 기업주를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이를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려는 가톨릭노동청년회

121)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3년 12월 13일자.

122)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9월 10일자; 1974년 10월 10일자; 1974년 11월 14일자; 1975년 5월 24일자.

123) 가톨릭시보, 1975년 3월 9일, 1쪽.

회원들의 노력이 기업주에게는 작업시간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 급여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등 불이익을 유발하는 존재로 보이고, 제 역할을 상실한 한국노총에게는 귀찮은 존재, 관공리들에게는 조직을 통하여 파업이나 태업 등으로 사회분위기를 어지럽히는 골칫거리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늘 감시당하고, 용공분자로 취급당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 아닌데도 가톨릭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위협을 당하는 등 점점 활동하기 어려워졌다.¹²⁴⁾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산업현장에서 생활을 통한 직접 교육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활동을 통한 내적 충실’은 결과적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희생을 초래하여 ‘내적 충실과 저변활동’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²⁵⁾ 전국회장단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만큼 사정은 나빠졌으나, 회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포기하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점점 영역이 확장되었다.¹²⁶⁾

유신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노동환경이 더욱 나빠졌지만,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자신과 동료들의 권익확보를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였으므로 개인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조직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역량보다 자신들의 영성심화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였으므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를 채우려고 노력하였다. 북부연합회는 을지로 4가 집과 상지회관에서 교리강좌와 일반교육을 하면서 금요미사 때 강론도 교리강좌로 활용하고, 남부연합회는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돈보스꼬청소녀센타 강당에서 교육하였다. 이러한 정기교육 외에도 활발한 피정과 세미나를 통해 역경을 비추어 이겨내는 한 줄기 빛이 되도록 노력하였다.¹²⁷⁾

124) 대우실업·대동화학·안암산업은 천주교신자의 신상을 알아내어 해고시키려 하였으나, 가톨릭노동청년회 교육을 계속하였다: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5년 5월 24일자.

125) 같은 신문.

126) 1975년 9월 11일 당시 북부연합회의 색션은 남자색션 11개에 회원 29명, 여자색션 15개에 회원 62명(총 91명), 예비팀은 남자 17개 팀에 50명, 여자 32개 팀에 115명(총 262명)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정기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미사 후에 노동자교실을 열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수요일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오락회를 열며, 색션회장들이 모여 교구와 색션의 운영을 계획(활동)하고 연구하는 운영위원회와 팀을 지도하는 회원과 일반회원들이 모여서 회원의 역할과 팀을 지도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회원모임을 개최하였다. 지역별 활동은 동부지구의 성수동·화양동·상봉동·천호동·면목동색션이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노동계의 현황을 연구 토론하고, 성북구지역은 정릉·월곡동·돈암동 성가병원 등이 매월 1회 공동회합하며, 명동(명지회)은 8명이 결혼한 뒤 행복한 가족운동에 참여하고, 을지로 주변 양복점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조직하고 노조를 결성하여 복직이 안 된 노동자들이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았다. 동서양행이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조직하고 노조를 결성하였으며, 아남산업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신고필증이 2번씩이나 반려되고, 한양직물은 노조는 있었으나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회원들의 의식개발로 조금씩 혜택 받고 있는 등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확장하고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활성화하여 노동자들의 전인적인 삶을 향상시켜 나갔다: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5년 10월 10일자.

127)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7년 1월 24일자.

✻ 제6절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재출범

서울대교구 가톨릭노동장년회는 1970년 9월 9일에 ‘노동장년가정운동’(Mouvement Ouvrier des Familles Chrétiens. : MOFC)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국제가톨릭노동운동기구’(Mouvement Mondial des Travailleurs Chrétiens. : MMTC)와 연대하고, 1970년 9월에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연합회(회장 정남대)’를 발족하는 등 기본조직을 갖추었다.¹²⁸⁾ 한편, 1970년 3월 19일에 ‘가톨릭노동상’을 제정하고, 1970년 11월 8일에 안양근로사회관에서 전국평의회를 열어 가톨릭노동청년회와 연합체를 구성하여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기도 하였다.¹²⁹⁾

그러나 도시산업사목연구회가 설립될 때 가톨릭노동장년회는 가톨릭노동가정운동이었지만 활동이 중지되었다. 자신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¹³⁰⁾ 도시산업사목연구회의 회원들은 가톨릭노동장년회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총대리 김철규 신부가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추진한 주택조합과 관련된 회원문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한중훈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지도신부가 1971년 5월까지 사건이 수습되기를 기다려 회장을 해임하도록 건의하여 일단 활동을 중지시켰다.

가톨릭노동장년회는 장년노동자들의 복음화에 꼭 필요한 존재이었으므로 1972년 2월 18일에 도시산업사목연구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가 옛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로 2개 팀을 구성하고 가톨릭노동장년회(CWM)¹³¹⁾를 재발족하여 김종덕(미카엘)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초대 지도신부를 맡았다. 이어 1972년 10월 18일에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임원 또는 실무지도자 가운데 2명을 회원으로 참석하도록 결정하였다.

128)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62쪽.

129) 가톨릭시보, 1970년 11월 29일, 3쪽.

130) 도요안, 같은 글, 66쪽; 69쪽. 이들은 중간 관리층과 작은 기업주들이 주요구성원이었으므로 운동의 목적이 점차 작은 기업주들의 목적과 비슷해져서 이 모임이 마치 노동자들을 위한 중소건축회사를 방불케 하였다. 1970년에 단체명칭을 ‘노동장년가정운동’으로 변경하고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World Movement of Christian Workers)와 연대하였다. ‘노동장년가정운동’의 이름은 남았으나, 노동자 자신들의 문제를 실제로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113쪽.

131) Christian Workers Movement.

1. 제한된 여건에서 활동재개

가톨릭노동장년회는 1973년 10월 24일에 개최된 제1회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에 가톨릭노동장년회 대표로 김종덕이 참여하였으며, 재발족한 이후의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현황을 전국대표인 이진엽이 보고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는 대구·부산·전주·서울·대전 등지에서 팀이 형성되어 활동하였다. 당시 활동의 문제로 구성원이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하였던 사람들로만 구성되고, 매월 4회 정기모임을 할 수 없으며, 팀이 생겼을 때 활동의 방향과 내용이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기성세대와 현격한 사고의 차이, 구조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즉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나 청년들로서는 아직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지적하였다. 국제연맹에 4년 전부터 정식으로 가입하였으나, 아직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육체노동자들과 노동계에 종사한 사람들, 특별히 노동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동조합, 신용조합 등의 정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을 세웠다.¹³²⁾

1974년 6월 6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드레스정밀기계제조주식회사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는 서동봉(다윗)과 그의 아내인 박 히아친타가 가톨릭노동장년회 대표로 ‘가정과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을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고달픈 삶과 온갖 역경 속에서도 나와 가족, 일터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의 몸부림이 잘 드러났다¹³³⁾. 가톨릭노동장년회는 정기총회가 개최될 때마다 활동상황과 문제점, 앞으로 전망 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혼인한 부부들로 대부분 직장과 가사 때문에 적극 활동하기 어려워 계속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즉, 팀들 간에 유대가 잘 되지 않아 확산하기 쉽지 않았다.¹³⁴⁾

가톨릭노동장년회는 한 달에 2~3번 정기모임을 개최하려 노력하였으며, CO분과가 활성화하도록 협조하고, 회지를 발간하여 정보를 교류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¹³⁵⁾ 팀을 확장하고 일반회를 개최하여 비록 소수이지만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하였고, 노동문제만 아니라 생활문제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가톨릭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한 서울통상을 비롯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과 청년신자들을 위한 기도회에 적극 참석하고 이

132)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제1회 정기총회 보고서, 1973년 10월 24일자.

133) 부록 3에 전문 수록.

134)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11월 14일자.

135)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5년 2월 24일자.

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였는데¹³⁶⁾, 당시 첨예하게 제기되던 투쟁에 대한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방법에 대한 토론에서 잘 드러났다.

2. 국제회의 참여와 안목확장

1974년 3월 15~25일에 싱가포르에서 일본·말레이시아·인도·싱가포르·세일론·한국 등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노동자의 활동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고 있다’(Theme: By Workers' actions a new society is being built)는 주제로 가톨릭노동장년회 아시아회의가 개최되었다. 가톨릭노동장년회는 이 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 사무국이 준비한 주제와 관련한 노동자와 노동조합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응답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대회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도요안 신부는 아시아지도신부로 이 회의에 참석하고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였다.¹³⁷⁾ 이어 1975년 1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도요안 신부가 유럽지역과 필리핀·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지를 여행한 뒤 상임위원회에서 외국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도요안 신부가 노동자의 활동보다 관리층 구조에서 활동을 하는 이들과 함께 모이는 문제를 국제본부에 제기하였다.¹³⁸⁾

1975년 8월 3일에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 30명이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생애’와 ‘어부 베드로’ 영화를 관람하고 간단하게 토의한 뒤, 프라도사제회를 한 국에 뿌리내리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오영진 신부 그리고 도요안 신부와 미사를 봉헌하고, 9월 14일에 오영진 신부로부터 프랑스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자운동을 수강하였다.¹³⁹⁾

136)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보고서, 1975년 1월 8일자.

137)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4월 30일자.

138)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5년 4월 12일자.

139)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보고서, 1975년 12월 15일자.

3. 한일교류



제1차 한일교류

가톨릭노동장년회는 일본 가톨릭노동장년회와 계속 교류하였다. 특히 일본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인 에드워드 신부가 수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을 교육하였다. 1974년 9월 27일에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이 에드워드 신부와 함께 지난 문제와 새로운 방향을 대화하였으

며¹⁴⁰⁾, 1975년 10월 1일에 에드워드 신부가 가톨릭노동장년회 한일교류문제로 방한하여 10월 30일까지 활동하였고, 1975년 10월 1~3일에 가톨릭노동장년회 제1차 한일교류를 시작하였다.

1976년 10월 2~5일에 제2차 한일교류를 개최하였다. 일본가톨릭노동장년회의 요시다 신부, 에드워드 신부, 수즈키, 시모다, 시모사키, 오야마, 모리에, 우에하라 등 8명과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17명 등 25명이 생활과 활동을 각각 보고하였으며, 10월 6일에 요시다 신부, 수즈키, 우에하라, 에드워드 신부 등과 회합하였는데, 가톨릭노동장년회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한일교류는 1979년까지 중단되었다가 1980년대에 재개되었다.

140)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보고서, 1974년 12월 1일자.

✱ 제7절 CO분과와 MCC분과 활동

1. CO분과 설립

1969년부터 한국 개신교는 새로운 선교방법으로 CO를 선택하였는데,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가 이 방법을 특수교육을 통하여 시도하였다. 이 교육을 받은 이들은 도시에 사는 여러 계층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지역 또는 행정당국이나 교회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과 함께 살며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권리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들이 도시빈민들을 생활 속에서 만나 서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며, 이러한 일들이 오늘의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들은 직접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여지고 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활동방향은 직장노동자들뿐 아니라, 가정을 갖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여 개인의식과 공동의식 계발을 통하여 주어진 자기 권리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역문제를 통하여 참된 시민의식을 깨우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본구조와 체제를 확립시켜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의 ‘지역사회조직가’ 과정을 제1기생으로 수료한 김혜경(사라)은 1969년 1월부터 1972년까지 동대문구 창신3동 낙산시민아파트 지역에서 활동하였다.¹⁴¹⁾ 청계피복지부,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등지에서 신학생 산업사목실습을 시행하던 도시산업연구회는 1972년 7월 8일부터 김혜경이 활동하는 낙산시민아파트 지역을 포함시켰다. 이어 1972년 10월 18일에 도시산업사목연구회가 김혜경을 평신도위원과 도시산업사목연구회 총무로 임명하였으며¹⁴²⁾, 도시산업사목연구회에 CO분과를 두었다.

141) 도요안, 같은 글, 71쪽.

142) 도시산업사목연구회가 서울대교구장과 부주교에게 보낸 1972년 10월 18일자 공문.

2. 신학생들의 CO교육

개신교는 목사나 선교사를 지망하는 이들 가운데 뜻 있는 이들을 모아 이 과정을 교육하여 현장활동가로 파견하여 도시빈민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하였으나, 가톨릭교회는 당시까지 김혜경이 유일하게 활동하였다. 즉, 1972년 여름방학(7월 14일~8월 17일)에 신학생 2명이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에 거주하면서 북부연합회 양 노엘 신부의 지도로 낙산아트리의 CO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본격적인 훈련은 아니었으며,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가톨릭대학 신학부 연구과 1년인 두 명의 서울대교구 신학생과 연구과 2년인 한 명의 인천교구 신학생이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자, 김혜경은 이들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실습시킬 계획을 세우고 서울대교구장과 도시산업사목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와 예산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김혜경의 계획서와 예산청구서를 검토한 도시산업사목위원회는 신학생 3명을 도시문제연구소팀(훈련소)에 파견하기로 하고, 도요안 신부가 조승혁 목사를 만나 파견에 따른 운영문제를 토의하였다. 1973년 1월부터 청계천 뚝방(동대문구 답십리 3~4동)에서 활동하던 김혜경은 1973년 7월 9일에 가톨릭대학 신학생 훈련관계자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즉 난곡지역으로 자리를 옮겼다.¹⁴³⁾

도시산업사목위원회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학생 여름방학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 참석한 신학생들은 서울대교구 연구과 1년 2명과, 인천교구 부제 1명, 살레시오회 신학생 2명 등이었다. 이들은 오리엔테이션으로 도요안 신부의 ‘그리스도와 사회’, 김혜경의 ‘CO의 실무자로서 경험담’, 연세대학교 도시문제 연구소 박창빈의 ‘CO의 이념’, 경주산업선교회 안광수 목사의 ‘노동자 사는 동네’, 인천산업선교회 정용환의 ‘CO의 실무자로서 경험담과 신앙생활’ 등을 교육받았다.

1973년 여름방학 신학생 산업사목 봉사단은 애초 난곡지역과 청계천으로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생겨 모두 난곡지역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7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난곡지역에서 지역선교 봉사훈련을 하면서 김혜경과 매주 정기회합을 하고 일기를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 돈보스꼬청소년센터에서 팀 회합을 하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어 8월

143) 김혜경은 도시산업사목연구회 주선으로 난곡지역에 집을 얻은 뒤 의료진과 도시빈민활동을 위한 집으로 만들었다. 이 집은 도시빈민들의 모임과 가톨릭대학 의학부,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든 의료기관의 성격을 지닌 곳이었다. 도요안, 같은 책, 71쪽.

12일부터 14일까지 훈련평가회와 기도회를 개최하고 마무리하였다. 김혜경은 난곡지역에 상주하면서 1973년 여름방학 신학생 산업사목 훈련을 CO로 실시하고 난곡지역에 대한 사업계획¹⁴⁴⁾과 활동결과를 보고하였다.

낙골(난곡)지역 전체를 중심으로 관찰 단계이다. 공소신자를 중심으로 교우방문을 통해 이들의 생활 문제와 공통문제를 관찰한다. 철거문제(74년도 3월경 예정), 식수난 문제, 버스안내원들의 문제들을 관찰하면서 이 지역에 공공기관, 특히 교회기관이 20여 개나 되는데도 조용한 이유를 관찰하고 있다(교회와 지역사회 관계관찰). 팀구성문제는 성년팀과 자모회를 통한 어머니들 조직을 우선할 필요가 있으며, 신학생을 훈련하여 철거문제에 대비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부연합회의 최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활동은 메리 루 수녀와 함께 하였다.¹⁴⁵⁾

이후 1974년 서울대교구 부제들 가운데 1명이 난곡 지역에서 CO 훈련을 받았으며¹⁴⁶⁾, CO 분과가 1975년 겨울방학 신학생 훈련회(1월 8일~2월 10일)에서 매주 1회 모임을 지도하는 등 신학생들의 CO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¹⁴⁷⁾

3. 난곡지역의 CO활동

1) 노동자문제 해결

난곡지역의 CO활동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다. 이 지역 동아고무공업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3명이 직업병(하반신 마비)에 걸려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는데, 회사 사장이 도망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어 노동청에 이 문제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노동청은 오히려 다른 기관보다 더 냉정하고 불친절할 뿐더러 노동자(피해자들)의 편이기

144) 첫째, 팀은 현재 일하는 지역주민 몇 분과 산업사목팀의 메리 루 수녀님이 함께 구성하겠다. 둘째, 신학생들의 훈련은 계속해야겠다. 셋째, 지역 내에 있는 버스안내원들에 대한 활동계획을 세우겠다. 넷째, 지역사회 선교위원회 팀(각 교단별로)을 구성할 계획이다: 도시산업사목위원회 보고서, 1973년 11월 14일자.

145) 도시산업사목위원회 보고서, 1973년 12월 13일자.

146)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9월 10일자.

147)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보고서, 1975년 1월 8일자.



1970년대 난곡 일대

보다는 기업주의 편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노동청에서 나오는 산재보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가족들이 생계와 사채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법정 투쟁을 하려 하였지만, 경찰이나 다른 기관도 협조하지 않았다. 즉, 도망간 사장을 잡는 일을 환자들에게

하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일은 노동자 자신들이 힘을 합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으며, 환자들이 교리를 배우고 싶어하여 이곳에서 활동하는 부제에게 이를 맡겼다.¹⁴⁸⁾

부득이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만들어 남부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법적인 혜택을 실제로 못 받자, 각계(13개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 비서실, 신민당 사무총장, 법률구조협회장, 기독교인권옹호협회 등이 회신하였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해결하고자 하였다.¹⁴⁹⁾

2) 의료활동

도시빈민들의 낙후된 환경은 의료부문에서도 사각지대였으므로 CO분과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 봉사반의 정기적인 활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가 1974년 9월 14일부터 활동하였는데, 천주교신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관계로 그동안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자, 10월부터 팸플릿을 통하여 활동을 적극 선전하고 의료진을 두 팀으로 나누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즉, 한 팀은 공소에서 전 과목을 진료하고, 한 팀은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한 주민의식화활동을 하였다.¹⁵⁰⁾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1974년 12월에는 매주 1회에 50~100명에게

148)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10월 10일자.

149)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11월 14일자.

150)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10월 10일자.



김수환 추기경, 도요안 신부와 함께 김혜경(뒷줄 오른쪽)

진료하고 투약함으로써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봉사단 활동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¹⁵¹⁾

1975년은 매주 1회에 50~80명 정도 진료를 받았으며, 치과탐이 있을 때는 120명 정도 혜택을 받았다.¹⁵²⁾ 그러나 진료장소인 공소가 협소하여 불편이 많아 3월

16일까지만 공소에서 진료하고, 버스종점 뒤 관악교회에 있는 직업소년학교로 장소를 옮겨 지역사회 의료협동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전한 뒤 매주 치과를 제외한 일반과를 모두 진료하였으나, 격주로 치과와 일반과를 번갈아 진료하기로 하고, 진료권은 천주교신자들을 통한 조사와 관악교회를 통한 조회 또는 동사무소에서 영세민 카드를 중심으로 천주교신자들이 배부하였다.¹⁵³⁾ 이들은 암도 검사하고, 일반과와 치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았다.¹⁵⁴⁾

3) 어머니들의 모임(국수클럽)

김혜경은 매월 15일에 23통 2반을 중심으로 주부 20여 명과 국수를 먹으며 회합하였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골목정비와 하수도공사 등을 실현시켰으며, 1975년부터 국수클럽 주부들을 교육하고 간부모임을 지도하였다. 국수클럽 어머니들을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교육한 이래 이들을 매월 1회 정도 교육하기로 하고, 생활교류를 통한 친목도모와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¹⁵⁵⁾

메리놀회 안 수녀가 국수클럽 어머니들에게 ‘봄철 위생문제와 어린이 예방접종’을 강의하자,

151)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12월 12일자.

152)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보고서, 1975년 1월 8일자.

153)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5년 3월 24일자.

154)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5년 10월 10일자.

155)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보고서, 1975년 1월 8일자.



신축 중인 난곡성당

이에 대한 내용을 토론했던 뒤 의료진에게 지역위생을 위하여 소독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당시 난곡지역의 산꼭대기에는 소독차가 올라오지 않아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이다.¹⁵⁶⁾

주민들 각자 1,000원씩 투자하여 소비조합을 결성하여

매월 3명이 1팀이 되어 1개월씩 관리 운영하기로 하고, 생활필수품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배분하였다.¹⁵⁷⁾ 이 소비조합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회원을 증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건을 사기 원하면 팔도록 하였다. 윤경수의 지도로 ‘어머니 양재교육’을 하는 등 주부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행하였다.

김혜경은 공소활동에도 개입하여 공소성모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성주간 피정을 개최하였다. 예수회 이한택(李漢澤, 요셉, 1934~) 신부와 이 아네스 수녀를 초청하여 ‘일반신자의 신앙생활(피정, 기도 예수님의 만남)’을 내용으로 그리스도인 생활과 여성의 역할(성모님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을 묵상하는 등¹⁵⁸⁾ 공소신자들의 신앙심 배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신림동성당 성모회장 지도로 공소성모회 요리강습을 개최하기도 하는 등 다각도로 활동하였다.¹⁵⁹⁾

4) 개신교와 협조, CO분과 활동의 확대

CO분과는 개신교와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안광수 목사와 만나 연구분석방법을 토의하고, 추수감사절 행사에 자모회 어머니들이 합창을 하였는데, 합창연습을 통한 어머니들의 협동심을 배양하였다. 그리고 난곡지역 선교위원 교역자 모임을 위하여 관악교회를 방문

156)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5년 3월 24일자.

157) 같은 보고서.

158)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5년 3월 24일자.

159)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5년 10월 10일자.

하여 지역교역자들 간의 유대와 평신도들의 유대를 논의하기도 하는 등 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¹⁶⁰⁾

난곡지역에서 CO분과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총무를 겸하는 김혜경과 분과실무자의 정식인건비가 책정되자, 시흥·철산리·봉천동까지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외국원조금의 혜택을 받도록 모색하기도 하였다.¹⁶¹⁾

CO분과는 이용유 신부가 ‘도시산업사목연구회’를 ‘노동사목위원회’로 개칭하고 CO분과를 노동사목위원회에서 분리시킬 때까지 도시빈민활동을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노동사목위원회에서 CO분과가 분리된 처음 몇 년 동안 도시빈민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빈민사목위원회가 주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정립될 수 있었던 자극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⁶²⁾

4. MCC분과 활동

도시산업사목연구회가 설립될 때 노동자 문제뿐 아니라, 기업주들을 비롯한 산업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기업주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고 박병윤 신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하였다.¹⁶³⁾ 그런데 1973년의 제1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그리스도인 관리·경영자들의 모임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이들이 있어 외국에서도 이미 경험한 MCC의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한 뒤 관심을 갖고 함께 협력하도록 박성중 신부와 자세한 내용을 의논하였다.¹⁶⁴⁾

제1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새로운 팀이 처음으로 발족되었으며, 총회의 ‘분야별 성격과 그 역할 소개’ 시간에 이명수(바오로)가 MCC를 소개하였다. 관리인이나 경영인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과 관계하고, 기업주들과 기업을 무마시키고 선의로 변화시키는 팀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앞으로 모든 산업분야에서 절대로 필요한 역할로 보았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므로 팀의 성격을 살려 MCC의 방향을 정하고자 하였다.

160)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11월 14일자.

161)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4년 12월 12일자.

162) 도요안, 같은 책, 71쪽.

163) 도시산업사목연구회 기획위원회 보고서, 1971년 7월 7일자

164)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제1회 정기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보고서, 1973년 6월 7일자.

MCC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정기능을 들었는데, MCC는 노동자들과 기업주들 간의 극과 극의 상태를 지양하여 중간간부 입장으로 특수 가톨릭 액션의 정신을 살려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무장으로 교황회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대단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¹⁶⁵⁾

1973년에 설립된 MCC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1974년 1월까지 교회 내 신자로서 사명감이 있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 중견간부급, 꾸르실료 회원 중 중견간부급 등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하여 생활의 실제문제를 갖고 기업주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노사상담협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1974년에 서울대교구에서 5~6개의 팀이 생길 경우 연합체를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한 교재는 박성중 신부가 소장한 외국서적을 우선 참고하며, 지도신부는 팀이 구성된 뒤 팀의 성격을 보면서 결정하고, 이 일에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위원인 송명숙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¹⁶⁶⁾

1974년 6월 6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의 ‘각 분야별 활동보고’ 시간에 MCC분과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팀이 구성되지 못하여 예정된 대로 활동한 바가 없어 총회에 불참하였다.¹⁶⁷⁾ 그러자 상임위원회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즉, MCC의 조직문제와 활동이 부진하므로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결과를 위원장 신부가 사목교서를 기초로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고, MCC가 안양에서 먼저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그곳에서 먼저 생긴 다음에 서울대교구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MCC분과의 활동은 꾀도 꾀워 보지 못하고 시들고 말았다.

165)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보고서, 1973년 10월 24일자.

166)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1973년 12월 13일자.

167)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보고서, 1974년 6월 6일자.

✻ 제8절 노동문제상담소 설립



명동노동문제상담소

예수회의 프라이스 신부와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박영기 교수는 한국에서 첫 노동문제상담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1979년 9월 8일, 서울대교구에 노동문제상담소 이사회가 조직됨으로써 현실화하였는데, 서울대교구는 네덜란드 주교회의의 국제발전사무국, ‘세베모’(Cebemo, 지금은 Balance라는 이름으로 알려짐)와 공동 계획으로 3개월 정도 준비하여 1979년

11월 30일에 과거 중국 가톨릭 공동체의 성당으로 사용되던 명동대성당 뒤편 건물에 노동문제상담소를 개설하였다. 1961년의 군사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김말룡(金末龍, 이나시오, 1927~1996)¹⁶⁸⁾을 한국 최초의 노동문제상담소 초대 소장으로 임명하였고, 신윤근, 정양숙 등이 실무자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그리고 도시산업사목위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노동현실에 깊숙이 개입하여 왔으나,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특히 퇴직금·체불임금·산업재해·노동조합관계 등 법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

168) 1927년 2월 2일에 경북 경주에서 출생하여 1953년에 국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1945년에 조선기계제작소에 입사하여 1945년 11월에 조선기계제작소 노조 선전부장이 되고, 1946년에 노총 창립대원이 되었으나, 1946년 8월에 노사분쟁사건과 관련되어 구속되었다. 1952년에 노총 조직부장이 되었다. 1954년 3월에 이승만 대통령 유시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수배되기도 하였으나, 1955년에 노총 경북연합회 위원장이 되었다. 1956년 10월에 노총이 자유당 기관단체에서 탈퇴하는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59년에 전국노조총협의회 의장, 1960년에 노총 의장이 되었다. 그러나 1961년 7월에 박정희 대통령 비난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고, 1967년에 전국연합노조 위원장이 되었다. 1978~1983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부회장, 1979~1992 천주교노동문제상담소장을 역임하였다. 1980년 5월에 5·18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기도 하였으나, 1991년에 신민당 최고위원, 1992~1996년 제14대 국회의원(전국, 민주), 1991년 민주당 당무위원, 1992년 민주당 전당대회 의장, 1993년 노동펜클럽 회장이 되었다. 1993년에 국회 돈 봉투 비리를 폭로하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1995년 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1996년 민주당 인천계양강화갑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96년 10월 3일에 선종하여 마석 묘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김말룡

로 해결하는 데는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에 접하고, 참다운 영성생활과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노동문제상담소를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문제와 관련된 각종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노동자들에게 충실한 상담과 자문역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¹⁶⁹⁾

이 상담소는 신자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아무리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해도 노동법에 관한 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 상담소를 통해서 실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교회가 현실 속에서 더욱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¹⁷⁰⁾

이 시기에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고 활동하던 반체제 인사들은 군사정권을 불법체제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비판하였다. 김말룡 소장의 꾸준한 노력과 신중하고도 과감한 통솔력으로 명동 노동문제상담소는 기존의 노동관계법들이 지닌 한계 속에서도 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투쟁하면서 당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않았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활동하였다. 이것은 노동현장을 더욱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공헌이었다. 왜냐하면 명동 노동문제상담소의 그 같은 활동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당국으로서는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69) 노동문제상담소는 설립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오늘날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조건을 지니고 있는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는 현실과 그들이 교회의 복음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에 접하고 참다운 영성생활을 통하여 성숙한 인간으로서 또한 바른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산업사회의 노동문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그 대상이 광범위하며 그 관련분야 또한 다방면인 만큼 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 노동사목에 관한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노동사목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분석과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계획 및 활동을 지도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노동사목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의 노동사목에 보다 폭넓은 종교적 차원에까지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이는 근로자들이 교회에 보다 가까이 오게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회가 근로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활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사목의 활동은 시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감에 따라 점차 그 폭을 넓히고 보다 발전된 계획이 입안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대교구는 1979년 11월 30일 노동문제상담소를 설립하고 근로자들이 겪는 각종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개시함으로써 교회가 일선노동자들의 고충에 동참(同參)하여 대화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 사업은 개시 이래 점차 활동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내일의 노동사목의 발전을 위한 초석(礎石)으로서 그 소임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노동문제상담소 종합보고서, 1979. 12. 1~1981. 11. 30 머리말).

170) 도요안, 같은 글, 73~74쪽; 한국가톨릭대사전 2, 1363~1364쪽; 가톨릭시보 1980년 1월 1일, 1쪽.

✻ 제9절 요약과 평가

1970년대는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유보되었던 시기로 ‘선 성장 후 분배’라는 파행적 경제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작업조건을 강요하던 시기였다. 가톨릭교회는 1971년 3월 24일 ‘노동사목위원회’의 전신인 ‘도시산업사목연구회’를 서울대교구에 설립하여 ‘강화도 심도직물 사태’(1968)와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1970.11.13)이라는 국내 노동현실과 회칙 『민족들의 발전』(1967)이라는 보편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였다.

도시산업사목연구회는 사회정의의 두 기둥인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중요한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뿐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동사목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지침으로 기능하는 주교단 공동교서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자』를 도시산업사목연구회가 건의하고 초안을 마련하였다. 1971년 11월 14일 평신도의 날을 기하여 발표한 한국천주교 주교단 공동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가운데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이라 불리는 『기쁨과 희망』에 근거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극단을 단죄하고, 공동선을 사회존재의 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요소가 인간의 존엄성임을 확인하였다. 주교단은 정치와 사회정의의 두 기둥인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당시사회의 병폐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생활지침을 제시하였다.

공동교서와 아울러 1972년 1월 2일의 주교단 공동선언은 가톨릭교회의 사회정의에 관한 사회교리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교회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가톨릭교회가 더 이상 불의와 부정, 부패와 부조리, 인권탄압과 독재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둘째, 도시산업사목연구회는 매년 1~2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는 단지 지난 날의 활동을 보고하고 앞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정리한 강의 또는 그 시대의 정신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를 돕고 실천지침을 제시해 주는 신학강의를 통해 자신들이 처한 시대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행동방향을 결정하였다.

셋째, 도시산업사목연구회는 노동사목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제를 양성하

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제학교, 신학생 산업사목연수회 개최, 프라도사제회 회원 양성 등에 노력하였다.

넷째, 산업사목을 위한 수녀회의 활동이 도시산업사목연구회가 설립되기 이전인 1960년대부터 노동자들의 영혼과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수도회들이 있었으나, 도시산업사목연구회가 설립되고, 특히 도시산업사목위원회로 개칭된 뒤 수녀단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다 음 수녀단의 활동이 더욱 체계화하고 활성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수녀단의 이름으로 수녀들의 모임을 개최하고, 자신들의 공식적인 활동을 산업사목팀(성신회) 지도, 버스안내원들에 대한 교육활동, 가톨릭노동청년회 팀 지도, 노동자기숙사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섯째, 1970년대는 한국가톨릭교회가 직·간접으로 노동운동에 두드러지게 참여한 시기라는 특징을 드러낸다. 교회는 사회교리에 입각하여 노동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노동조합 설립과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자신들의 존엄한 인격을 각성시키고, 자신들의 권익을 획득하고 보장받도록 하였다. 도시산업사목위원회는 1958년에 설립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도시산업사목위원회의 정식기구로 편입시킨 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에 대한 교육강화와 아울러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직·간접으로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한국노총과 긴장·대립, 개신교와 협력·갈등이 발생하였다.

여섯째, 도시산업사목위원회는 1979년 11월 30일에 노동문제상담소를 개설하였다. 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그리고 도시산업사목위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노동현실에 깊숙이 개입하여 왔으나,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특히 퇴직금체불 등 법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제약이 많았다. 이러한 판단에서 “노동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에 접하고, 참다운 영성 생활과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한 뒤 가톨릭신자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곱째, 일부 대학생들이 노동현장에 들어와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그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노동현장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협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을 초래하였다. 산업현장에 취업한 일부 대학생(위장취업자)들의 활동은 목적이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제1원칙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들의 활동은 교

회의 가르침, 노동영성이 결여된 노동운동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1970년대 가톨릭교회, 도시산업위원회가 수행한 여러 활동은 사회교리의 기본원리인 연대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수행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보조성의 원리와 그 활동을 드러내지 않는 가톨릭교회의 문화는 개신교의 활동에 비해 소극적이었다는 일부평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된다.

결론적으로 1970년대 가톨릭교회의 노동사목은 교회일부의 일탈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에 입각하여 사회정의의 두 기둥인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